

『本經疏證』의 『本草述』 引用에 대한 考察

¹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敎室 講師 · ²韓醫學古典研究所 博士後研究員
安鎮熹^{1,2*}

A Study on Verses Quoted from the 『Bencaoshu』 in the 『Benjingshuzheng』

Ahn Jinhee^{1,2*}

¹Lecturer in the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²Post-doctoral Researcher at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Objectives : This paper examines verses from the 『Bencaoshu』 that are quoted in the 『Benjingshuzheng』 to determine its characteristics.

Methods : Based on the two texts, contents by Liuqianjiang in the 『Benjingshuzheng』 were selected, of which his pharmacology was examined to determine common characteristics.

Results & Conclusions : Based on what Zouzhu adopted from the pharmacology of the 『Bencaoshu』, it could be said that he focused on the interaction between Yin/Yang and Five Phases, the ascending/descending/exiting/entering of Qi, and the smooth circulation and communication of Qi. Constant Yin/Yang movement as a result of continuous circulation of Qi was emphasized. Zouzhu's adoption of the pharmacology of the 『Bencaoshu』 is in indication of his approval of Liuqianjiang's descriptive methods, and his will to follow and further develop the pharmacology of the 『Bencaoshu』 that is based on the theories of the 『Shanghanlun』 and the 『Jinguiyaole』.

Key words : 『Benjingshuzheng』, 『Bencaoshu』, Zouzhu(鄒澗), Liuqianjiang(劉潛江), Yin/Yang and Five Phases(陰陽五行)

* Corresponding author : Ahn Jinhee.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Korea.

Tel : +82-2-961-9183, Fax : +82-2-961-9229, Email : jini@khu.ac.kr

Received(February 8, 2021), Revised(February 17, 2021), Accepted(February 17, 2021)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序論

『本經疏證』¹⁾은 1832년에 鄒澍가 편찬한 책으로 총 12권이며, 『神農本草經』을 주로 삼고, 『傷寒論』, 『金匱要略』 등의 方書를 중심으로 藥理를 분석하고 『神農本草經』의 性味·效能·主治 등을 注疏한 책이다.

『本經疏證』에 실린 약물은 173종으로 箋疏의 예를 사용하고, 辨論하는 體를 사용하여 藥性 이론을 분석하고 臨床에서의 用藥의 뜻을 밝혔는데, 漢唐시대의 方書와 明清시대 盧子繇·劉潛江 등의 藥理說을 폭넓게 참고하였으며, 본인의 경험도 많이 기재하였다.

鄒澍는 『本經疏證』을 편찬할 때 劉潛江의 『本草述』에 영향을 받아 총 32종의 약물 설명에서 인용하였으며, 劉潛江의 기술 방식을 계승하여 藥物 개개의 특성을 설명하면서도 方劑를 함께 기재하여 體用을 아울렀으며, 藥物의 형태, 色, 氣味性情, 발생 시기 등을 근거로 陰陽五行과 升降浮沈의 이론으로 藥理를 설명하였다.

이에 『本經疏證』 내에서 劉潛江의 『本草述』 인용 부분을 살펴 明末에서 清代까지 劉潛江, 張隱庵, 徐靈胎, 陳修園, 楊時泰, 鄒澍 등으로 이어지는 學問의 系統에서 劉潛江의 눈높이 鄒澍의 『本經疏證』에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²⁾

『本草述』과 관련해서 CNKI DB를 검색해본 결과 柯³⁾, 楊⁴⁾, 張瑞賢⁵⁾, 焦⁶⁾, 萬⁸⁾, 王⁹⁾, 張敏¹⁰⁾,

殷¹¹⁾ 등의 논문이 있었다.

柯는 劉潛江의 생애, 『本草述』의 편찬 동기, 특징, 후대에 미친 영향 등을 대략적으로 개괄하였다.

楊은 『本草述』의 편제, 주요 내용, 판본, 특징과 학술적인 가치에 대해 주로 다루었고, 鄒澍가 『本草述』에 관심을 기울여 『本經疏證』을 저술할 때 盧子繇와 劉潛江의 논설을 인용함이 많았다고 개괄적인 서술을 하였다.

張瑞賢은 『本草述』의 편찬 과정, 학술성취, 후대에 끼친 영향 등을 다루었다.

焦의 첫 번째 논문에서는 劉潛江의 생애, 『本草述』 初刊과 그 流傳, 『本草述』의 주요 내용과 특징 등을 다루었고, 焦의 두 번째 논문에서는 劉潛江의 생애, 『本草述』의 기술 방식, 陰陽五行學說에 근거한 약물 설명 등을 토대로 『本草述』이 독특한 風格을 형성했고, 藥性和 藥理를 강조한 전문서적으로 본초학의 발전사에 있어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鄒澍가 劉潛江의 『本草述』이 金元 諸家の 說을 꿰뚫었다고 평가하는 말을 통해 『本草述』에 대한 鄒澍의 믿음을 엿볼 수 있었다.

萬은 劉潛江의 생애, 『本草述』과 『本草綱目』과의 차이, 『本草述』의 학술적 특징과 후대에 미친 영향 등을 다루었는데, 鄒澍가 『本草述』을 깊이 연구한 후에 후세 藥理論을 모을 때 盧子繇와 劉潛江의 說을 제일 많이 기재했다고 하였다.

王은 鄒澍의 本草 著作 연구 중 成書 背景에서 清代에 尊經復古의 本草學 研究 思潮가 유리한 환경

1) 『本經疏證』과 관련한 대략적인 개괄은 기존 연구와 Baidu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林鎮錫. 鄒澍의 醫學思想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5. pp.1-74.

王昆文. 鄒澍安與《本經疏證》. 四川中醫. 1990. 1. pp.10-11.

李鐵君. 鄒澍和他的《本經疏證》. 南京中醫學院學報. 1983. 3. pp.54-56.

本經疏證. 百度百科. 2008. [cited on February 1, 2020]; Available from: URL: <https://baike.baidu.com/item/%E6%9C%AC%E7%BB%8F%E7%96%8F%E8%AF%81/10181438?fr=aladdin>

2) 林鎮錫. 鄒澍의 醫學思想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5. pp.1-74. 林鎮錫은 鄒澍의 醫學思想의 背景을 논술하면서 明末에서 清代까지 劉潛江, 張隱庵, 徐靈胎, 陳修園, 楊時泰, 鄒澍 등으로 이어지는 學問的 系統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柯新橋. 潛江劉若金軼事. 湖北中醫雜誌. 1983. 3. p.58.

4) 楊玉荷. 《本草述》說略. 湖北中醫雜誌. 1992. 5. pp.50-51.

5) 張瑞賢. 劉若金《本草述》初探. 中藥材. 1993. 6. pp.40-41.

6) 焦振廉. 劉若金及《本草述》述略. 福建中醫藥. 2003. 3. pp.36-37.

7) 焦振廉. 談《本草述》的本草學史地位及其得失. 福建中醫藥. 2006. 6. pp.62-63.

8) 萬德華. 本草學家劉若金傳略. 中國民族民間醫藥. 2012. 21(9). p.157.

9) 王全利. 鄒澍本草著作研究. 山東中醫藥大學 博士學位論文. 2014. pp.1-108.

10) 張敏. 明清時期荆楚中醫藥發展文獻研究. 湖北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16. pp.1-62.

11) 殷中來, 陳冰. 讀《本草述校注》淺析劉若金學術思想. 中醫文獻雜誌. 2016. 34(2). pp.17-20.

을 제공하였고, 醫藥文獻의 累積이 鄒澍에게 기초를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鄒澍가 劉潛江과 盧復·盧子繇父子를 翕모하여 대량으로 그들의 著作을 인용했고, 劉潛江처럼 聯合하는 방법을 채용하여 『本經』, 『別錄』, 『傷寒論』, 『金匱要略』, 『肘後備急方』, 『千金方』, 『外臺秘要』 등의 저작을 聯合하였다고 하였다.

張敏은 明清時期 荊楚中醫藥發展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책을 『本草綱目』과 『本草述』로 삼은 뒤에 劉潛江과 『本草述』에 대해 간략하게 그 특징을 개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本草述』이 鄒澍의 『本經疏證』, 『本經續疏』 등의 편찬에 영향을 미쳤고, 鄒澍의 저서에서 藥理를 논할 때 盧子繇와 劉潛江의 논설을 인용함이 가장 많았다고 하였다.

이상의 『本草述』 관련 제반 연구를 통해 논자는 『本經疏證』이 주로 『本草述』의 편찬 후 후대에 미친 영향으로 著者と 書名 등만이 간략하게 언급되는 정도에 그쳤고, 『本經疏證』에서 『本草述』의 어떤 부분을 많이 인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다.

『本經疏證』과 관련한 기존 연구로는 林鎮錫의 연구¹²⁾와 CNKI DB 검색 결과 李鐵君¹³⁾, 王昆文¹⁴⁾, 王全利¹⁵⁾ 등의 논문이 있었다.

林鎮錫은 清代 考證學의 發達과 鄒澍의 生涯 및 形色氣味·發生時期·產地·性情 등에 의한 藥理說, 總體的인 觀察法 등을 다루었는데, 그 중 醫學思想의 背景 부분에서 鄒澍가 가장 많이 인용한 학자는 劉潛江이고, 『本草述』이 鄒澍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언급하였다.

李鐵君은 鄒澍의 생애, 학문의 태도, 著作 등에 대해 다루면서 『本經疏證』이 『本草述』의 기초 위에서 闡發하고 發揮하여 완성한 책이고, 『本草述』은

李東垣, 朱丹溪, 王好古, 張潔古 등의 醫家들의 실천을 결합하였으나, 張仲景과 孫思邈 등 經方家의 임상 응용 방면에 있어서는 비교적 간략하여 鄒澍가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用藥規律의 토론에 대하여 『神農本草經』과 상호 發明하여 引證하고 臨牀辨證을 결합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王昆文은 鄒澍의 『本經疏證』이 辨論하는 體로 『神農本草經』의 藥물 연구에 대하여 깊이 분석하였으며, 시종일관 病機를 붙잡고서 論方과 論病을 떠나지 않았고, 『內經』, 『傷寒論』, 『金匱要略』의 정미로움을 한 火爐에 녹여내었다고 평가하였다.

王全利는 鄒澍의 本草 著作 연구 중 成書 背景에서 清代에 尊經復古의 本草學 研究 思潮가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고, 醫藥文獻의 累積이 鄒澍에게 기초를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鄒澍가 劉潛江과 盧復·盧子繇父子를 翕모하여 대량으로 그들의 著作을 인용했고, 劉潛江처럼 聯合하는 방법을 채용했다고 하였다.

이상의 『本經疏證』 관련 제반 연구를 통해 논자는 『本經疏證』이 『本草述』을 많이 인용하는 등 그 영향을 깊이 받은 것을 알 수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연구방법은 『本草述』¹⁶⁾, 『本經疏證』¹⁷⁾ 등의 문헌을 바탕으로 『本經疏證』 내에서 劉潛江云, 劉潛江曰, 劉潛江謂, 劉潛江述 등 鄒澍가 『本草述』을 인용하여 藥理를 기술한 藥物을 선택한 후에 인용한 각 藥물의 藥理說을 살펴 그 공통되는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明末에서 清代까지 劉潛江, 張隱庵, 徐靈胎, 陳修園, 楊時泰, 鄒澍 등으로 이어지는 學問的 系統 연구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12) 林鎮錫. 鄒澍의 醫學思想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5. pp.1-74.

林鎮錫, 朴贊國. 鄒澍의 醫學思想에 대한 研究 -藥理說을 中心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95. 9. pp.380-429.

13) 李鐵君. 鄒澍和他的《本經疏證》. 南京中醫學院學報. 1983. 3. pp.54-56.

14) 王昆文. 鄒澍與《本經疏證》. 四川中醫. 1990. 1. pp.10-11.

15) 王全利. 鄒澍本草著作研究. 山東中醫藥大學 博士學位論文. 2014. pp.1-108.

16) 劉若金 原著. 鄒懷林 等 校注. 本草述校注.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5. pp.1-722.

17) 鄒澍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1-308.

鄒澍 著,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pp.1-379.

鄒澍 著,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 下. 서울. 아티전. 1999. pp.380-785.

II. 本論

1. 『本草述』과 『本經疏證』의 관계

『本草述』¹⁸⁾은清代에 劉潛江(劉若金)이 30년의 시간을 들여서 歷代 약학 전문 서적의 是非와 優劣을 분석한 기초 위에서 열 번이나 원고를 고쳐 총 32권, 80萬字로 1699년에 간행한 책으로 明代와 明代 以前의 藥學 성과를 종합정리했다.

『本草述』에 기재된 약물은 약 490여종인데 약물의 배열 순서는 대체적으로 『本草綱目』을 따랐으나, 일부 배열 순서를 조정하기도 하였고, 『神農本草經』과 『靈樞』와 『素問』을 약물을 논의하는 데에 있어서 근본으로 삼았고, 縱적인 方向으로는 單用할 때의 약물의 개성과 특징을 천명하고, 橫적인 方向으로는 配伍관계에 따라 약물을 合用한 후의 약효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약물 지식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組方을 도왔다.

『本草述』의 每 약물마다 正名, 異名, 產地, 形態, 採取, 氣味, 主治, 愚按, 附方, 修治의 순서대로 기술하였고, 약물 생성의 때로써 藥性的 五氣와 五味를 헤아렸으며, 陰陽升降理論을 써서 藥性和 臟腑經絡의 관계를 변별하였고, 실용과 印象을 중시하여 약물을 선택함이 精當하고 실용적이며, 『丹溪本草』, 『本草綱目』, 『神農本草經疏』 등의 藥理論과 陳嘉謨, 李當之, 盧之頤, 李中梓 등의 用藥心得을 참조하여 약물의 功效와 主治에 대해 源流를 분명히 하였으며 세밀하게 분석했다.

『本草述』은 비록 문체가 蔓衍하다는 결점이 있기는 하지만, 楊時泰의 『本草述鈞元』, 陳其瑞의 『本草撮要』, 張琦의 『本草述錄』, 蔣溶의 『萃金裘本草述錄』, 蘇廷琬의 『藥義明辨』, 鄒澍의 『本經疏證』, 『本經續疏』 등의 편찬에 영향을 미쳤고, 鄒澍의 저서에서 藥理를 논할 때 盧子繇와 劉若金의 논설을 인용함이 가장 많았다.

한편 『本經疏證』¹⁹⁾은 1832년에 鄒澍가 편찬한 책으로 총 12권이며, 부록으로 『本經續疏』 6권, 『本經序疏要』 8권이 있다. 『本經疏證』은 『神農本草經』을 주로 삼고, 『名醫別錄』과 『唐本圖經』을 보조로 삼으며 『傷寒論』, 『金匱要略』, 『千金方』, 『外臺秘要』 등 古方의 약물 配伍 이론을 분석하여 『神農本草經』을 注疏한 책이다.

그 중 『本經疏證』에 실린 약물이 173종이고, 『本經續疏』에 실린 약물이 142종으로, 모두 315종이며, 이 두 책은 모두 例는 箋疏의 例를 사용하고, 體는 辨論하는 體를 사용하여서 藥性 이론을 분석하고 臨床에서의 用藥의 뜻을 밝혔다.

『本經疏證』은 漢唐시대의 方書와 明清시대 盧子繇나 劉潛江 등의 약리설을 폭넓게 참고하였으며, 鄒澍는 『神農本草經』에 기재된 藥性을 古方에서 실제 運用한 것과 서로 결합하여 분석을 세밀하게 하였고, 鄒澍 본인의 경험도 많이 실려 있다.

鄒澍는 『本經疏證』을 편찬할 때 劉潛江의 『本草述』에 실린 藥理說을 총 32종의 약물 설명에 인용하였으며, 劉潛江이 藥物 개개의 특성을 설명하면서도 여러 方書에 실린 方劑를 함께 기재하여 方劑 내에서의 약물의 쓰임을 함께 알 수 있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藥物을 體로 삼고 方劑를 用으로 삼아 體用을 함께 아울러었으며, 藥物의 형태, 色, 氣味性情, 발생 시기 등을 근거로 陰陽五行과 升降浮沈의 이론으로 藥理를 설명한 것도 『本草述』의 방식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鄒澍가 『神農本草經』과 『名醫別錄』의 性味·效能·主治 등을 근간으로 삼고 方劑와 藥物을 관련지어 설명할 때 『本草述』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張仲景의 『傷寒論』과 『金匱要略』 등의 方書를 위주로 설명하

18) 柯新橋. 潛江劉若金軼事. 湖北中醫雜誌. 1983. 3. p.58.
楊玉荷. 『本草述』說略. 湖北中醫雜誌. 1992. 5. pp.50-51.
萬德華. 本草學家劉若金傳略. 中國民族民間醫藥. 2012. 21(9). p.157.
王全利. 鄒澍本草著作研究. 山東中醫藥大學. 2014. pp.1-108.
張敏. 明清時期荆楚中醫藥發展文獻研究. 湖北中醫藥大學. 2016. pp.1-62.

19) 林鎮錫. 鄒澍의 醫學思想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大醫院 博士學位論文. 1995. pp.1-74.
王昆文. 鄒澍安與《本經疏證》. 四川中醫. 1990. 1. pp.10-11.
李鐵君. 鄒澍和他的《本經疏證》. 南京中醫學院學報. 1983. 3. pp.54-56.
本經疏證. 百度百科. 2008. [cited on February 1, 2020]; Available from: URL: <https://baike.baidu.com/item/%E6%9C%AC%E7%BB%8F%E7%96%8F%E8%AF%81/10181438?fr=aladdin>

며, 考證學의 영향을 받아 處方이나 引用하는 논술의 出處를 비교적 명확히 밝혔다면 劉潛江은 『本草述』에서 性味·效能·主治를 기술할 때 『神農本草經』과 『名醫別錄』을 비롯하여 『日華子本草』, 『本草綱目』 등의 내용도 함께 참조하여 인용하였으나, 處方을 기재할 때 丹溪方처럼 분명하게 그 出處를 언급한 경우도 있는 반면에 引用出處와 處方名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2. 『本經疏證』에 기재된 『本草述』 인용에 대한 분석²⁰⁾

鄒澍가 『本經疏證』 내에서 劉潛江云, 劉潛江曰, 劉潛江謂, 劉潛江述 등 『本草述』을 인용하여 藥理를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瓜蒂

劉潛江이 말하기를, 참외는 2월에 씨를 심으면 참외 덩굴이 뻗어 나오면서 자라나니, 이는 風木으로 말미암아 水에 達하는 것이다. 5~6월에 꽃이 피는데 그 색깔은 노란색이니, 이는 火氣를 잡고서 土에 이르는 것이니, 곧 꽃을 토해내면 곧 꼭지가 있게 되는데, 꼭지의 맛은 쓰고, 열매는 곧 꼭지 위에 맺히고 맛은 달다. 이는 또한 水氣를 達하여서 土에 이르는 것이니, 단맛을 버리고 오직 쓴맛을 쓰는 이유는 바로 쓴맛이 능히 단맛에 達하는 쓰임 때문이다. 단맛의 쓰임은 어떤 것인가? 대체로 다만 水에 達하여 土에 이를 뿐만이 아니라 더욱 먼저 능히 水에 達하여 火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꼭지의 쓴맛은 土氣가 火에 근본하고, 참외의 寒性은 土氣가 水에서 펼쳐진다. 그 莖트머리는 크고 근본은 작은 것을 보니, 水氣에서 두텁게 품고, 火는 水 가운데에서 근원하여 여름에 이르러서 火가 마침내 達하니, 火가 마침내 達함은 바로 水가 마침내 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무릇 土의 단맛은 본래 四氣를 갖추고 있고 水火를 用으로 삼는데 水火가 마침내 達함에 이르면 土의 用도 이에 가장 높은 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 胃氣가 肺에 이르러 四臟에 펼쳐지는 것은 모두 이로 말미암는다. 이에 나아가 생각해 보니 제반 證을 치료하는 功은 마치 火가 능히 達하면 風과 熱로 인하여 질환이 된 것은 모두 흩어지고, 水가 능히 達하면 濕과 寒으로 인하여 질환이 된 것은 모두 흩어지며, 水火가 이미 達하면 토도 또한 저절로 達한다. 하물며 濕熱黃疸은 그 병의 원인이 土의 體에 있으니, 또한 어찌 達하지 못함이 있겠는가?²¹⁾²²⁾

鄒澍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瓜蒂에 대해 살펴보니, 五行의 상호 작용과 氣의 通達을 중시하였다.

참외의 성장 과정을 보면 덩굴성 식물로 줄기를 뻗어 나가다가 노란색 꽃을 피우고, 꽃이 진 뒤에는 꽃받침 부분이 꼭지가 되며, 꼭지를 근본으로 삼아 참외 열매가 결실을 맺는데, 이를 莖트머리는 크고 근본은 작다(末大本小)고 하였다. 근본은 火에 속하는 쓴맛을 지닌 꼭지이고, 莖트머리는 土에 속하는 단맛을 지닌 참외이다. 여름에 이르러 火氣가 완전히 펼쳐지면 水氣도 완전히 펼쳐져 열매가 결실을 맺게 되고, 水火의 펼쳐짐은 다시 土가 達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土氣가 達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黃疸 등에 瓜蒂를 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五行의 상호 작용과 氣의 通達을 중시한 것이다.

20) 『本經疏證』 내에서 劉潛江云, 劉潛江曰, 劉潛江謂, 劉潛江述이라고 한 부분이 『本草述』 내의 각 약재의 논술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대체적으로 鄒澍가 劉潛江 논설의 本旨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술하였으므로 따로 『本草述』의 내용과 일일이 교감하지 않고 진행하였으며, 『本草述』 내에 다른 醫家의 논설 인용 부분도 제외하지 않았다.

21) 鄒澍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123-125. “劉潛江曰, 瓜以二月下種, 蔓延而生, 是由風木以達水, 花於五六月其色黃, 是乘火氣以致土, 乃吐花即有蒂, 蒂味苦, 實即結於蒂上而味甘, 是又爲達水氣以至土, 其所以舍甘而獨用苦者, 正以苦能達甘之用也. 甘之用云何. 蓋不止達水以至土, 更先能達水以至火也. 故蒂之苦其氣本於火, 瓜之寒其氣暢於水, 觀其末大本小, 可知厚孕於水氣, 火原在水中, 至夏而火畢達, 火之畢達, 正水之畢達也. 夫土之甘本備四氣, 而以水火爲用, 至於水火畢達, 則土之用乃得際於極上, 胃氣之至於肺以布四臟, 皆由此也. 卽是以思, 則其療諸證之功, 如火能達, 則風與熱之爲患者俱散, 水能達, 則濕與寒之爲患者俱散, 水火既達, 土亦自達矣. 何況濕熱黃疸, 其病原在土之體, 又何不達之有哉.”

22) 鄒澍 著,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pp.199-201.

2) 款冬花

劉潛江이 이르기를, 『易·繫辭』에서 “한 번 陰하고 한 번 陽하는 것을 道라고 일컫는다.”라고 했고,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말하기를, “陽을 쌓아 하늘이 되고, 陰을 쌓아 땅이 된다.”라고 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陽이 주인이 되어 陰을 낳고, 땅에서는 陰이 주인이 되어 陽을 낳는다. 그러나 하늘의 陽이 陰을 얻어 화합하지 못하면 亢陽이 되어 陰으로 변화하여 내려갈 수가 없고, 땅의 陰이 陽을 얻어 화합하지 못하면 窮陰이 되어 陽으로 변화하여 올라갈 수가 없다. 사람의 氣도 이에 상응하니, 그러므로 腎은 陰中之 陽으로 능히 상승하여 하늘과 만나고, 肺는 陽中之 陰으로 능히 하강하여 땅에 이른다. 그러나, 肺는 반드시 腎氣가 도달해야 하강하고, 腎은 반드시 肺氣가 도달해야 상승한다. 腎이 상승하지 못하면 水氣가 붓고 가득 차는 질환이 일어나고, 肺가 하강하지 못하면 欬逆上氣와 喘息喉痺의 병이 생긴다. 이러한 까닭으로 欬逆上氣와 喘息喉痺는 陰中之 陽이 올라가지 못하여 陽中之 陰이 하강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款冬花의 氣는 하늘의 따뜻함을 얻고, 味는 후박으로 發散함을 갖추고 있으며, 본래 지극히 陽의인 식물로 특히 한겨울에 天地가 꼭 막힌 계절을 당하여 단단히 얼은 곳을 기름진 토양으로 만들고, 서리와 눈을 흡수하여 스스로를 적시며, 또한 그 꽃은 줄기 끝에 매달려 있지 않고, 잎사귀 사이에서 나오지 않으며 赤色과 黑色을 겸하고 있는 뿌리 주변에 붙어 있으니, 곧 그 능히 陽에서 陰을 흡수하여 아래로 되돌아가고, 陰으로부터 陽을 낳는다고 일컫지 않는 것이 不可하다. 驚癇은 陽이 陰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고, 寒熱邪氣는 陰陽이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다. 제반 驚癇과 寒熱邪氣를 치료한다는 것은 무릇 陰陽이 화합하지 못하여 陽이 陰에 의존하지 않고 陰이 陽에 붙지 않는 證에 이렇게 陽에서 陰을 흡수하고 陰으로부터 陽을 낳는 약물을 얻으면 陰陽이 저절로 서로 의지하고 기대어 화합하는 것이다.²³⁾²⁴⁾

23) 鄒澍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177-178. “劉潛江云, 易繫辭曰, 一陰一陽之謂道. 素問·陰陽應象大論曰, 積陽爲天, 積陰爲地. 故在天則陽爲主而生陰, 在地則陰爲主而生陽. 然天之陽不得陰和, 則爲亢陽, 不能化陰以降, 地之陰不得陽和, 則爲窮陰, 不能化陽以升. 人

鄒澍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款冬花에 대해 살펴보니,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하였다.

자연계에서 陽이 陰을 얻어 화합하지 않으면 亢陽이 되어 하강할 수가 없게 되고, 陰이 陽을 얻어 화합하지 않으면 窮陰이 되어 상승할 수가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체 내에서 肺는 陽中之 陰으로 하강하지만 腎氣의 상승이 일어난 뒤에 하강하고, 腎은 陰中之 陽으로 상승하지만 肺氣의 하강이 일어난 뒤에 상승할 수가 있다.

款冬花는 氣味를 보았을 때 辛甘溫하여 至陽하므로 견고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만드는 등 從陰生陽할 수 있고, 하늘로부터 서리와 눈을 흡수하여 스스로를 적시는 등 在陽吸陰할 수 있어서 驚癇·寒熱邪氣 등의 病證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3) 芎藭

무릇 약물의 성질이 건조하고 맛이 매워 능히 陽氣를 升發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陰氣를 소모시킬 수가 있다. 오직 芎藭만이 싹이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이 반드시 清明 이후인데, 곧 溫和하기만 하고 왕성하지 않은 氣는 능히 鼓動시킬 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가지를 취하여 흙 속에 가로로 묻어두면 능히 마디마다 뿌리가 나오고 싹이 돋을 수 있으니, 芎藭은 왕성한 陽氣에 있어서 응색한 것을 피지 않음이 없으며, 사이사이에 도달하지 않음이 없음을 또한 알 수 있다. 8월에 이르러 뿌리의 마디마다 모두 芎藭이 맺혀 9~10월에 채취한다. 그때를 지나치면 虛하고 열등해진다. 왕성한 陽을 만나면 진실로 升發하지 않

氣應之, 故腎爲陰中之陽, 能上際乎天, 肺爲陽中之陰, 能下極於地. 然肺必得腎氣至而降, 腎必得肺氣至而升. 腎不升則水氣腫滿之患作, 肺不降則欬逆上氣喘息喉痺之病生. 是故欬逆上氣喘息喉痺者, 陰中之陽不上朝, 以致陽中之陰不下降也. 款冬花氣得天之溫, 味具辛甘發散, 本爲至陽之物, 特當隆冬天地閉塞之候, 以堅冰爲膏壤, 吸霜雪以自濡, 且其花不麗於莖端, 不緣於葉際, 偏附近於赤黑相兼之根, 則不謂其能在陽吸陰以歸於下, 而從陰生陽不可. 驚癇者, 陽不依陰也. 寒熱邪氣者, 陰陽不和而相爭也. 治諸驚癇寒熱邪氣, 言凡陰陽不和, 陽不依陰陰不附陽之證, 得此在陽吸陰從陰生陽之物, 則陰陽自相依附而和也.”

24) 鄒澍 著,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pp.283-284.

음이 없지만, 陰을 수렴하는 때를 感受함에 다시 능히 은밀함 속에 물러나 감추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가히 알 수 있다. 또한 그 陰을 만나서 감췄던 것이 곧 陽을 만나서 공급하여 升發하며, 특히 물러나 감춰야흐로 견고해지는 때를 당하고 만나서 거두어 채취하니, 이에 升發하는 가운데에 수렴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劉潛江이 芎藭은 능히 陰中에서 達陽할 수 있고, 陽中에서 貫陰할 수 있다고 한 두마디 말을 가히 바꿀 수가 없다.²⁵⁾²⁶⁾

鄒澍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芎藭에 대해 살펴보니, 陰陽의 상호 작용과 氣의 通達을 중시하였다.

芎藭은 辛溫하고 건조하며 24절기 중 清明이 지나 陽氣가 왕성한 시기에 자국을 받으면 흙에 심어둔 가지에서 마디마다 뿌리가 내리고 싹이 돋는 등 왕성한 陽氣의 升發 작용을 발휘하는데, 이 升發 작용은 陰氣의 소모를 밀바탕으로 한다. 이는 작년 가을 수렴하여 저장해둔 陰氣를 소모시키면서 陽氣가 왕성한 시기에 升發 작용을 일으키고, 升發 작용을 다 한 뒤에는 그 氣를 다시 뿌리로 거두어 내년을 대비하는 등 陰中에서 達陽하고, 陽中에서 貫陰한다고 보았고, 이는 陰陽의 상호 작용과 氣의 通達을 중시한 것이다.

4) 橘柚(=橘皮)

劉潛江이 이르기를 橘皮는 쓴맛과 매운맛이 고루 섞여 있고 氣는 따뜻하다. 만약 다만 그 쓴맛으로 배설하고 매운맛으로 발산하고 따뜻한 氣로 운행시킨다는 것에 의거하여 停滯한 氣를 운행시키는 보통 약

물로 여기면 잘못된 것이다. 『本經』에서는 홀로 利水穀을 취하였으니, 무릇 後天의 氣는 곧 水穀의 氣가 眞氣와 합쳐서 몸을 채우는 것이다. 水穀이 순조롭게 소화되면 水穀의 氣가 창달하고 무성해져서 眞氣가 그 도움을 받는다.²⁷⁾²⁸⁾

鄒澍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橘皮에 대해 살펴보니, 水穀의 氣를 순조롭게 하면 眞氣가 도움을 받는다라는 내용 외에 별 특징적인 내용은 없다.

5) 當歸

劉潛江이 말하기를, 當歸는 맛이 달다가 다음에는 쓰고 다음에는 맵다. 또한 다시 달고 쓴 맛은 화가 되고 心에 속하여 血이 주관하는 곳으로 돌아간다. 쓰고 매운 맛은 金火가 서로 결합하여 水를 잉태함이니, 화가 金으로 인하여 水에 화합하면 氣化하고, 金이 水를 잉태하여 火에 친하면 血이 생긴다. 그 처음에 단 것은 곡식이 胃에 들어온 후에 肺에 전해지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 다시 단 것은 中焦가 胃中과 함께 上焦의 뒤에서 나오는 것과 같으니, 여기서 받은 氣는 糟粕과 津液을 분리하여 精微로운 것으로 변화하여 위로 肺에 주입하여 이에 변화하여 血이 되는 것이 이것이다. 肺가 心에 합쳐서 氣化하면 血脈이 말미암아 시작하게 되고, 肺가 脾에 합쳐서 血化하면 經脈이 말미암아 통하게 된다. 그러므로 血이 부족한 곳에는 血이 氣를 날게 하여 여유롭고 운택하게 하고, 血이 어긋나고 막히는 곳에는 血이 氣를 변화하여 조화롭게 하고 운행시킨다. 능히 血을 기르고 또한 능히 血을 조화롭게 하고 운행하여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그 마땅히 돌아가야 할 곳으로 각각 돌아가지 않음이 없다. 이 말은 실로 옛 성인이 명명한 미묘한 뜻을 얻은 것으로 여기에 약물의 體性이 갖춰져 있고 그 작용도 또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대개 血

25) 鄒澍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59-62. “凡物之性燥味辛, 能升發陽氣者, 必能消耗陰氣. 惟芎藭透苗出土, 必至清明已後, 則其不爲溫而未盛之氣所能鼓動可知. 既而取枝橫埋土中, 能節節作根生苗, 則其於盛陽之氣, 無壅不宣, 無間不達, 亦可知. 至八月每節根下皆結芎藭, 九十月採之, 過其時即虛劣, 則其遇盛陽, 固無不升發, 感陰收, 復能退藏於密又可知, 且其遇陰而藏者, 卽以供遇陽而發, 特收采當值退藏方固之時, 乃得發中有收之益, 此劉潛江芎藭能達陽於陰中, 卽能貫陰於陽中二語, 所以不可易也.”

26) 鄒澍 著, 林鎭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pp.98-101.

27) 鄒澍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112-114. “劉潛江云, 橘皮味苦辛適均而氣溫, 若但據其苦洩辛散溫行, 以爲與他行滯氣之物等, 則誤矣. 本經於此獨取其利水穀, 夫後天之氣, 卽水穀氣合於眞氣以充身者也. 水穀利, 則水穀之氣暢茂, 而眞氣得其助.”

28) 鄒澍 著, 林鎭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pp.182-183.

이 부족하면 氣가 침습하여 거처하니, 그 氣를 운행시켜 여유롭고 윤곽하게 하면 血이 생긴다. 血의 성질은 항상 흘러 운행하는데 어긋나고 막히는 것은 氣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니, 조화롭게 하고 운행시키면 氣가 血을 방해하지 않는다. 氣가 통하여 순조로우면 血도 잘 흐르고 운행하니, 곧 각각 그 마땅히 돌아갈 곳으로 돌아감을 일컫는다.²⁹⁾³⁰⁾

鄒澍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當歸에 대해 살펴보니, 五行의 상호 작용과 氣血의 상호 작용을 중시하였다. 氣는 陽에 속하고, 血은 陰에 속하므로 크게 보면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當歸가 지닌 味는 甘味 외에 苦味와 辛味が 있는데, 苦味와 辛味를 각각 火와 金에 배속시키고 속성이 서로 다른 金과 火가 상호 결합함으로써 水를 잉태하고, 火가 金으로 인하여 水에 화합하면 氣化하고, 金이 水를 잉태하여 火에 친하면 血이 생긴다고 한 것 등은 五行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또한 當歸라고 명명한 의미가 마땅히 돌아갈 곳으로 돌아간다고 보고, 血이 부족할 때는 養血하고, 血이 막힐 때는 行血하는데, 그 기전이 血에서 氣를 생성시키거나 변화시켜 氣血의 상호 작용을 이끌어내는 데에 있다고 본 것은 氣血, 크게 보면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6) 獨活과 防風

29) 鄒澍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149-152. “劉潛江曰, 當歸味甘次苦辛, 又復甘苦爲火而屬心, 歸於血之所主矣. 苦而有辛, 是金火相合以孕水也. 火因金而和於水則氣化, 金孕水而親於火則血生. 其始甘者, 所謂穀入於胃以傳於肺也. 其終仍甘者, 所謂中焦並胃中出上焦之後, 此所受氣泌糟粕津液, 化其精微上注於肺, 乃化爲血是也. 肺合於心而氣化, 爲血脈之所由始. 肺合於脾而血化, 爲經脈之所由通. 故血所不足處, 卽有血之生氣以裕之潤之, 血所乖阻處, 卽有血之化氣以和之行之. 既能養血, 又能和血行血, 隨所引而莫不各歸其所當歸, 斯言也, 實得古聖命名之微義, 於是物之體性備矣, 而其用亦不外乎是. 蓋血所不足, 則氣襲而居之, 行其氣而且裕之潤之, 則血生矣. 血性常流行而乖阻, 卽氣爲之也. 和之行之則氣不爲血礙矣. 氣通利而血流行, 則各歸其所當歸之謂也.”

30) 鄒澍 著,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pp.240-245.

劉潛江이 이르기를, 『易』에서 말하기를, “하늘에 근본한 것은 위와 친하고, 땅에 근본한 것은 아래와 친하다.”라고 하였고, 『素問』에서 말하기를, “辛味와 甘味는 發散하여 陽이 되고, 酸味와 苦味는 涌泄하여 陰이 된다.”고 하였으며, 선현들께서 말하기를 “매운 맛이 아니면 하늘에 이를 수가 없고, 쓴맛이 아니면 땅에 이를 수가 없다.”고 했다. 防風과 獨活은 氣味가 모두 옅고 성질은 위로 떠서 상승한다. 防風은 매운맛이 먼저 나오고 단맛이 나중에 나오며, 매운맛이 단맛보다 우세하니 그 뜻은 매운맛에 근본하여서 상승하고 이에 단맛에 합쳐져 中土로 돌아와 그 발산의 쓰임을 펼치는 것이다. 獨活은 쓴맛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매운맛이 나오는데 쓴맛이 많고 매운맛은 적으며 매운맛 뒤에 단맛이 있으니, 그 뜻은 쓴맛에 근본하여서 陰에 들어가 매운맛으로 변화한 후 상행하여 단맛의 도움을 얻어 氣가 이에 펼쳐진다. 그러므로 防風은 상부로부터 온몸에 도달하고, 獨活은 하부로부터 온몸에 도달한다. 무릇 大風과 頭眩痛과 惡風과 風邪로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등은 상부의 병이니, 상부의 병은 그 치료를 응당 하강시켜야 하나, 상승의 방법을 잘 쓰면 한 번 가서 되돌아오지 않는다. 貫脈과 癩瘻와 女子疝瘕 등은 하부의 병이니, 하부의 병은 그 치료를 응당 상승시켜야 하나, 하강의 방법을 잘 쓰면 순하게 흘러내려가 버린다. 오직 防風은 상승하는 體를 갖추고 하강하는 用을 얻었으며, 獨活은 하강하는 體를 갖추고 상승하는 用을 얻었다. 이른바 상승하는 가운데 하강이 있고, 하강하는 가운데 상승이 있다. 이로써 獨活은 능히 水中으로 氣를 도달시켜 陰結을 흘리고, 防風은 火中으로 氣를 퍼서 陽結을 흘린다. 上行이 극에 달하면 내려가고, 下行이 극에 달하면 올라간다. 이에 陰陽이 서로 교류하면 병이 나은 뒤에도 남은 근심이 없다.³¹⁾³²⁾

31) 鄒澍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43-46. “劉潛江云, 易曰, 本乎天者親上, 本乎地者親下. 素問曰, 辛甘發散爲陽, 酸苦涌泄爲陰. 先哲曰, 非辛無以至天, 非苦無以至地. 防風獨活氣味俱薄, 性浮以升, 而防風先辛後甘, 辛勝於甘, 故其爲義本於辛以上升, 乃合甘而還中土, 以暢其發散之用. 獨活先苦次辛, 苦多辛少, 辛後有甘, 故其爲義本於苦以入陰, 變爲辛以上行, 得甘之助而氣乃暢. 故防風自上達於周身, 獨活則自下達於周身矣. 夫大風頭眩痛惡風, 風邪目盲所見, 是在上之病, 在上之病, 其治應降, 升

鄒澗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獨活과 防風에 대해 살펴보니, 氣의 升降出入과 氣의 通達을 중시하였다.

獨活과 防風을 서로 대비하여 설명했는데, 防風은 매운맛이 단맛보다 우세하여 매운맛에 근본하여 상승하고, 상승하는 본체를 갖추고 하강하며, 火中에 氣를 창달하여 陽結을 흠는 등 주로 상부의 병을 치료한다. 반면 獨活은 쓴맛이 많고 매운맛이 적어 쓴맛에 근본하여 陰에 들어가고, 하강하는 본체를 갖추고 상승하며, 水中에 氣를 도달하게 하여 陰結을 흠는 등 주로 하부의 병을 치료한다. 이는 氣의 升降出入과 氣의 通達을 중시한 것이다.

7) 麥門冬

劉潛江이 이르기를, 麥門冬은 사계절 내내 시들지 않지만, 그 뿌리를 채취하는 것은 반드시 夏至 이전에 해야 하니, 이는 지극히 陰的인 것으로써 지극히 陽的인 쓰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心肺는 至陽이며, 至陰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 陽이 陰을 얻지 못하면 항진하여 陰을 변화하지 못하므로 虛勞의 要藥이다. …… , 대개 麥門冬이 熱을 없애는 기전은 苦寒한 약물과 다르다. 麥門冬은 오직 서늘하고 화평한 성질과 윤택한 질로 메마른 陰을 회복하고 脈氣를 소통하면 항진된 陽이 陰에 의지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肺의 伏火를 흠어서 逆氣를 經으로 들여보낸다는 뜻으로 이것이 이른바 益肺氣이다.³³⁾³⁴⁾

鄒澗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麥門冬에 대해 살펴보니,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하였다.

麥門冬은 虛勞의 요약으로 그 성품이 서늘하고 화평하며 윤택하여 補陰함으로써 항진된 양이 陰에 의지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苦寒한 성질로 熱을 치는 것과 차이가 있다. 麥門冬은 지극히 陰的인 성질을 지니고 있지만 麥門冬이 작용하는 곳은 지극히 陽的인 心肺이므로 지극히 陰的인 것과 지극히 陽的인 것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麥門冬을 채취하는 시기도 一陰이 始生하는 夏至 이후가 아니라 夏至 이전을 택하였다. 이는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8) 麻子仁

劉潛江이 일컫기를, 『爾雅翼』에서 “麥黃種象, 粟黃種麥”이라고 하였으니, 麻는 木火가 한창 왕성한 시기에 생겨서 金水가 바야흐로 풍요한 때에 완숙함이다. 그러므로 麻子仁의 쓰임은 능히 木火가 태워죽이는 가운데에 부드럽게 자양하는 金水の 작용이 있다. 곧 능히 金水가 무성한 곳에서 木火의 밝은 기능을 완성한다. 오직 金水가 화합해야 水火가 번갈아서 작용한다. 이로써 中土의 升清하고 降濁하는 기능이 제대로 행해져야 온몸이 모두 그 혜택을 받게 된다. 『本經』에서 補中益氣하고 久服肥健한다고 하는 효능은 진실로 이에 말미암는다. 이것은 진실로 능히 麻子仁 효능의 요점을 드러낸 것이며, 농사법의 그윽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다. 특히 『別錄』에 기재된 破積血하고 復血脈하며, 산후의 후유증을 치료하고 머리털을 잘 자라게 하는 효능은 대부분 血과 관계가 있으니, “氣가 충실해야 血이 조절된다.”는 말만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무릇 中焦에서 氣를 받아서 血이 된다는 「決氣篇」의 말은 틀리지 않았으니, 心主血의 징험이 되지 않겠는가. 心은 丁火로서 밀의 壬水에 교류하여 木이 되는데, 이것이 乙肝의 氣를 補益하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乙肝을 補益하면 밀으로 大腸과 교류하여 金이 된다. 이렇게 되면 부드럽게 자양하는 氣를 윤택하여 소통시키고 하강하는 작용이 정제하지 않는다. 이것이 곧 血이 능히 氣를 윤택시키는 근원인 것이다. 仲景이 麻仁丸을 만들어 脾約을

則一往不返矣。賁豚滿室，女子疝瘕，是在下之病，在下之病，其治應升，降則順流而下矣。惟防風具升之體，得降之用，獨活具降之體，得升之用，所謂升中有降，降中有升。是以獨活能達氣於水中，而散陰之結，防風能暢氣於火中，而散陽之結，上行極而下，下行極而上，斯陰陽得交，愈後無餘患也。”

32) 鄒澗 著,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pp.72-75.

33) 鄒澗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41-43. “劉潛江云, 麥門冬四季不彫, 然採其根, 必在夏至之前, 是爲以至陰效至陽之用. 心肺至陽也, 不能離至陰, 以陽不得陰, 則亢而不能化陰, 故虛勞以爲要藥. …… , 蓋麥門冬之祛熱, 不比於苦寒之品, 惟以清和之性, 潤澤之質, 能回陰燥, 通脈氣, 使亢陽得依於陰, 是所謂散肺伏火也. 使逆氣得入於經, 是所謂益肺氣也.”

34) 鄒澗 著,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pp.69-72.

치료한 뜻도 여기에 있다. 「決氣篇」에서 또 말하기를, “上焦는 열고 일어서서 氣가 된다.”고 했는데, 氣는 肺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肺는 辛금이 되어 밑으로 丙火와 교류하여 水가 되는데, 癸腎의 血을 補益하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癸腎을 補益하면 위로 戊土와 교류하여 君火가 되고, 이렇게 밝게 일어나는 氣를 운행하여 계속 올린다. 이것이 곧 氣가 능히 血을 조절하는 근원인 것이다. 仲景이 炙甘草湯을 만들어 脈을 회복하는 뜻이 여기에 있다. 오직 丁壬이 능히 木을 化生해야 肝木이 윤택해져서 저장한 血이 저절로 운행하여 쌓이지 않으며, 산후에 후유증이 저절로 없어진다. 오직 辛丙이 水를 발생해야 腎水가 강화되어 저장된 水가 氣와 어그러져 붓거나 氣에 막혀서 오줌이 잘 나오는 증상이 없어진다. 風을 치료할 때는 먼저 血을 다스린다. 血이 風을 속으로 불러들이지 않게 하려면 血을 윤택하게 하는 약물이 적당하다. 머리털은 血의 나머지이다. 血이 心에 영양을 주지 못하여 베마르면 血脈을 회복하는 약을 써야 한다. 이처럼 『別錄』은 약물을 상세하게 밝혀서 확실히 『本經』의 미비함을 보충하였다.³⁵⁾³⁶⁾

35) 鄒澍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118-120. “劉潛江謂, 爾雅翼言麥黃種麥, 稟黃種麥, 是麻生於木火正旺之時, 成於金水方饒之日, 故麻子仁之爲用, 能於木火焦殺中生金水柔滋之化, 即能於金水滂沛中成木火通明之功. 唯其金水克諸, 水火迭化, 是以中土升降降濁之機括不愆, 一身皆受其蔭, 本經謂其補中益氣, 久服肥健, 良由乎此. 是誠能揭麻子仁功用之要, 洵農經奧突之秘矣. 特別錄所載破積血復血脈, 乳產餘疾, 沐髮長潤, 功能多半在血, 謂皆由於氣充血乃調, 容或有未盡然者. 夫中焦受氣爲血, 決氣篇不謬矣, 不可爲心血之驗乎. 心爲丁火, 下交壬水而化爲木, 不可爲益乙肝之氣之證乎. 乙肝受益, 下交大腸, 而化爲金, 以行其柔滋之氣, 而通降者不滯, 是即血能行氣之源. 仲景製麻仁丸治脾約, 取裁之所在矣. 決氣篇又曰, 上焦開發爲氣, 氣不主於肺乎. 肺爲辛金, 下交丙火而化爲水, 不可爲益癸腎之血之證乎. 癸腎受益, 上交戊土而化君火, 以行其明爽發越之氣, 而升者不滯, 是即氣能調血之源. 仲景製炙甘草湯以復脈取法之所在矣. 惟丁壬能化木, 則肝木澤, 其所藏之血, 自行而不積, 產乳自無餘疾. 唯辛丙能化水, 則腎水強, 其所藏之水, 自不至因氣乖而腫, 因氣阻而溺塞矣. 治風先治血, 緣血不行招風取中者, 尤宜仗澤血液之物, 髮乃血之餘, 緣血不榮心而枯短者, 允當用復血脈之劑, 此別錄宣闡藥物之詳, 確能補本經之未備者也.”

36) 鄒澍 著, 林鏗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pp.190-193.

鄒澍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麻子仁에 대해 살펴보니, 陰陽과 五行의 상호 작용을 중시하였다.

麻子仁은 『本經』에서 補中益氣하고, 『別錄』에서 破積血과 復血脈 등의 효능을 언급했는데, 血이 氣를 운행하는 근원이고, 氣가 血을 조절하는 근원이라고 한 것은 氣血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며, 氣는 陽에 속하고, 血은 陰에 속하므로 크게 보면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또한 心은 丁火로서 壬水에 교류하여 木이 되고, 이것이 乙肝의 氣를 補하는 증거로 乙肝을 補하면 大腸과 교류하여 金이 된다고 하거나 丁壬이 능히 木을 化生해야 肝木이 윤택해져서 저장한 血이 저절로 운행하고, 辛丙이 水를 발생해야 腎水가 강화된다고 하는 것 등은 五行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9) 牡蠣

劉潛江이 이끄기를, 牡蠣는 소금물이 응결되어 이루어지고 덩어리 모양으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無情한 것이다. 그러나 밑물에 열고 썰물에 닫는 것은 아주 有情하게 보이니, 어째서인가. …… 牡蠣의 결성은 潮水에 밀려온 물거품이 돌에 붙어서 점점 자라나는 것이다. 無를 빌려서 有를 이루고, 헛된 거품으로 단단한 물질을 만든다. 潮水로 인하여 생기므로 이情은 潮水와 관계가 있으며, 潮水에 따라 토해냈다가 받아들였다가 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하다. 무릇 물은 陰中の 陽으로 밑물과 썰물은 陽이 움직이는 것이다. 밑물 때 찻질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은 陽을 불러들여 陰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썰물 때 찻질을 닫고 속에 들어온 것을 먹는 것은 그 陰을 변화하여 陽을 맑게 하는 것이다. 오직 陽을 불러서 陰으로 되돌리므로 陰이 陽을 얻어 변화하고, 오직 陰을 변화하여 陽을 살게 해주므로 陽이 陰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다.³⁷⁾³⁸⁾

37) 鄒澍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108-112. “劉潛江云, 牡蠣鹽水結成, 塊然不動, 無情者也. 然潮漲則開, 潮落則合, 極似有情者何以故. …… 牡蠣之結, 緣水沫爲潮所蕩而依於石, 因是漸漸生長, 假無或有, 幻泡作堅, 因潮而生, 斯情繫於潮, 其與潮爲吐納也固宜. 夫水, 陰中之陽, 潮則陽之動也, 迎其漲則開以納之, 是召乎陽

鄒澗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牡蠣에 대해 살펴보니,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하였다.

牡蠣는 潮水에 의해 물거품이 돌에 붙어 점점 자라나는 것으로 밀물이 오면 껍질을 열어 받아들이는 것을 陽을 불러들여 陰으로 되돌린다고 했는데, 이는 潮水의 陽의인 활동으로 牡蠣가 점점 형성되어 감을 말한다. 또한 썰물 때 껍질을 닫고 속에 들어온 것을 먹는 것을 陰을 변화하여 陽을 맑게 하고, 陽을 살게 한다고 했는데, 이는 껍질 속으로 이미 들어온 것을 먹어 정화시킴으로써 陽이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10) 礬石

劉潛江이 이르기를, 礬石은 氣가 차갑고 짠맛은 적으며 시고 떫은 맛이 많다. 이처럼 寒水의 氣味가 시고 떫은 맛 속에 들어있다. 신맛은 하부의 陽이 陰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며, 떫은 맛은 상부의 陰이 아직 陽과 화합하지 못한 상태이다. 하부의 陰이 이미 도달하지 못했다면 상부의 陽도 마침내 변화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礬石은 다만 潤下의 쓰임만을 이룰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니, 어찌 다시 燥를 말하는가. 무릇 燥金은 肺에 속하며, 陽中の 陰이 되고, 그 氣는 썰리지만 능히 腎을 살릴 수 있다. 礬石의 質色氣味가 이런 의미에 모두 합치되지 않음이 없다. 무릇 이와 같으면 礬石은 燥金에 근본을 두고 水의 작용을 완성하여 오로지 下焦로 되돌아감을 알 수 있다. 다만 人身의 陰陽은 교류하고자 한다. 이와 같다면 礬石은 마치 陽에서 陰을 분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무릇 礬石은 陽에서 陰을 분리하지 않는다. 陽邪가 風으로 변하면 液을 위협하여 痰을 만들고 痰은 陰을 소모할 뿐이다. 대개 인체에서 오직 寒水는 지극인 陰의인 氣이며, 여기서 至陽이 나온다. 陰中の 至陽이 위로 상승하며 그 변화를 행함에 또한 陰精이 수반하여 陽이 퍼지게 도와준다. 예를

들어 六淫이나 七情으로 陰을 손상하면 陽은 고립되어 제대로 운행할 수가 없고, 지나쳐서 風이 된다. 風이 이미 陽을 부추겨서 사납게 만들고 陰을 위협하여 痰을 만든다. 이때 痰을 없애지 않으면 風이 가라앉지 않고 風이 가라앉지 않으면 陽이 이에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 오직 陰을 거두어 근원으로 되돌려 보내고 陽에서 분리해야 바야흐로 陰이 주관하는 것이 있어서 痰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痰이 소멸되어야 風이 가라앉고, 風이 가라앉으면 陽이 제대로 작용한다. 이렇게 되면 眞陽과 眞陰은 자연스럽게 서로 의지하여 근원으로 돌아간다. 인체의 至陽은 본래 陰中에서 나오는데, 礬石은 도리어 陽中の 至陰을 도리어 온전하게 하며, 인체의 陰陽은 서로 합해서 각각 작용하는데 礬石은 도리어 분리하여 통합적인 작용을 한다. 이런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礬石의 主治는 그 대략을 얻을 수가 있다. 礬石은 元陰을 처음 발생한 곳으로 돌려보내 陰을 여유롭게 하고 元陽을 펼친다. 陽이 펼쳐지면 陰이 가히 도달할 수가 있고, 陰에 여유가 생기면 陽이 회합할 수 있다. 陽이 화합하면 寒熱이 저절로 그치고, 陰이 도달하면 洩利白沃도 저절로 없어진다. 또한 陰에 여유가 생기고 陽이 화평해지면 津液이 가득 퍼지니, 陽이 다시 어찌 陰을 침식하여 惡瘡를 생기게 하겠는가. 目痛은 陰이 陽邪를 압박하는 것이며, 뼈와 이빨이 약해지는 원인은 陽邪가 陰을 혼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礬石으로 한 번에 陽邪에서 陰을 분리하면 모든 질환이 없어진다. 39)40)

39) 鄒澗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4-5. “劉潛江云, 礬石氣寒, 味鹹少而酸澇多. 夫是之謂舉寒水之氣味, 盡該於酸澇, 酸者下之陽未能達陰也, 澇者上之陰未能化陽也, 下之陰既不得達, 上之陽遂無以化, 則礬石者, 祇能成其潤下之用矣, 何以復云燥哉. 夫燥金屬肺 爲陽中之陰, 其氣澇而能生腎, 與礬石之質色氣味, 無不有合焉. 夫如是則其本燥金以成水化, 而專歸於下, 可知也. 第人身陰陽, 欲其交, 若是者不似使陰離於陽乎. 夫礬非使陰離於陽, 乃使陰離陽邪之化風, 以劫液爲痰, 而轉耗陰者耳. 蓋人身惟寒水爲至陰之氣, 而至陽出焉, 陰中至陽升於上, 以行其化, 亦端賴陰精隨之以資其宣發, 如六淫七情, 一有以傷其陰, 則陽孤無以行其化, 溼而爲風, 既以鼓陽爲厲, 復以劫陰化痰, 於斯時也, 不消痰則風仍不靖, 不靖風則陽仍不化, 惟收陰歸元, 俾離於陽, 方得使陰有主, 不化爲痰, 由痰消而風靖, 由風靖而陽化, 眞陽眞陰得自相依, 以歸其元也. 人身至陽, 本出於陰中, 而此反全至陰於陽中, 人身陰陽, 以相合而神其分

以歸陰也. 迨其退則合以茹之, 是化其陰以清陽也. 惟其召陽歸陰, 故陰得陽以化, 惟其化陰以宅陽, 故陽由陰而清.”

38) 鄒澗 著, 林鎭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pp.175-180.

鄒澗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礬石에 대해 살펴보니,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하였다.

礬石은 氣가 찬데, 寒水는 지극히 陰의인 氣로 至陽이 나오며, 陰中의 至陽이 위로 상승하며 그 변화를 행함에 陰精이 따라가서 陽이 퍼질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거나 陽이 펼쳐지면 陰이 도달할 수가 있고, 陰에 여유가 생기면 陽이 화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등은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11) 柏實

劉潛江이 이르기를, 보통 나무는 모두 햇빛을 향하는데, 측백나무만은 홀로 서쪽을 향한다. 이것이 木氣가 金氣와 더불어 서로 얽히는 것이다. 무릇 金木은 生成의 終始로 木은 봄기운을 받아 발생하고, 金은 가을 기운을 받아 완성한다. 사람의 肝肺도 여기에 상응하여 肝이 肺에 합해져 化하면 陰이 발생하여 血을 만드는 근원이 풍족해진다. 이에 陰이 하강함에 陽이 따라오니, 이른바 金의 하강이 끝나지 않으면 木의 상승도 또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肺가 肝에 합해져 化하면 陽이 발생하여 氣를 만드는 근원이 풍족해진다. 이에 陽이 상승함에 陰이 따라오니, 이른바 木의 상승이 끝나지 않으면 金의 하강도 또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⁴¹⁾⁴²⁾

鄒澗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柏實에 대해 살펴보니, 측백나무는 나무지만 서쪽을 향하므로 木氣

와 金氣가 서로 얽힌다고 한 것은 五行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陰이 하강함에 陽이 따라온다거나 陽이 상승함에 陰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은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金의 하강이 끝나지 않으면 木의 상승도 또한 끝나지 않고, 木의 상승이 끝나지 않으면 金의 하강도 또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氣의 升降出入을 중시한 것이다.

12) 白前

劉潛江이 이르기를, 『別錄』에서 白前의 主治를 첫머리에 胸脅逆氣라고 했다. 무릇 胸中은 진실로 肺가 다스리는 곳이고, 옆구리는 陰陽이 升降하는 도로이다. 다음으로 欬嗽上氣를 말했는데, 氣의 升降이 서로 따르면 곧 陰陽이 나누어졌다가 합해진다. 상승이 많고 하강이 적으면 혹은 陰이 혹은 陽이 모두 능히 병이 들 수가 있다. 하부의 眞陰이 不足하면 상부의 陽을 부르지 못해 氣가 하강하지 않고, 상부의 眞陽이 不足하면 하부의 陰을 발생하지 못하여 氣도 또한 하강하지 않는다. 이는 모두 虛에 속하니, 진실로 白前과 같은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後天之病으로 外邪에 감촉되어 예를 들어 痰熱이 상부에서 막거나 奔豚이 상충하는 부류는 이른바 上實下虛하거나 下實上虛한 것이니, 그 주관하는 바를 따라서 이로써 앞에서 이끌게 되니, 거의 근사하다. 이는 그 마땅히 그러한 바로 진실로 이와 같지만 그 所以然은 마침내 아직 분명하지 않다.⁴³⁾⁴⁴⁾

鄒澗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白前に 대해 살펴보니, 상부의 眞陽이 부족하거나 하부의 眞陰이 부족한 虛證의 병변에 쓸 수 없고, 外感邪氣로 인하

之用, 而此反似由離而效其合之用. 統參使義, 則礬石主治可以得其大都矣. 以其能歸元陰於初發之地, 以裕陰化而暢元陽, 陽暢則陰可達, 陰裕則陽得和, 陽和則寒熱自己, 陰達則洩利白沃自除, 且陰裕陽和, 津液充暢, 陽更何能蝕陰以生惡瘡哉. 目痛者, 陰之迫於陽邪也. 骨齒不堅者, 陽邪之瀰於陰也. 一使陰離於陽邪而皆可已矣.”

40) 鄒澗 著,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pp.9-12.

41) 鄒澗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86-87. “劉潛江云, 凡木皆向陽, 柏獨西指, 是木氣與金氣媾. 夫金木者生成之終始, 木稟春生, 金稟秋成, 人之肝肺應之. 肝合乎肺, 而化則陰生, 而血之化源裕, 於是陰降陽隨, 所謂金之降不窮, 則木之升亦不窮也. 肺合乎肝, 而化則陽生, 而氣之化源裕, 於是陽升陰隨, 所謂木之升不窮, 則金之降亦不窮也.”

42) 鄒澗 著,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pp.137-139.

43) 鄒澗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193. “劉潛江云, 別錄白前主治, 首言胸脅逆氣. 夫胸中固肺所治, 脅則陰陽升降之道路也. 次言欬嗽上氣, 氣升降之相隨, 即陰陽之分而合者也. 升多降少則或陰或陽皆能病之, 如下之眞陰不足, 即無以召上之陽而氣不降, 上之眞陽不足, 即不能生下之陰, 而氣亦不降, 此皆屬虛, 固非白前輩所能治. 惟後天之病, 外邪所感, 如痰熱上壅奔豚上沖之類, 所謂上實下虛, 下實上虛者, 隨其所主而以是爲先導, 庶幾近之. 此其所當然, 固如是矣, 其所以然, 卒未明也.”

44) 鄒澗 著,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pp.309-310.

여 痰熱이 상부에서 막아 上實下虛하거나 奔豚이 상충하는 下實上虛의 부류에 마땅하지만, 그 기전은 분명하지 않다고 하였다.

13) 茯苓

劉潛江이 이르기를, 茯苓은 본래 老松의 신령한 氣가 잡혀 응결하여 形을 이룬 것이다. …… , 또한 단맛은 먼저 脾로 들어가고 담담함은 주로 胃를 기르니, 茯苓은 그 효능이 中土에 있으며, 淸陽을 올린다. 陽을 올리면 濁을 배설하는 쓰임이 된다. 그러므로 茯苓은 上焦에서 益氣하며 痰을 몰아내고, 下焦에서 水를 인도하고 健脾하는데, 모두 상승력으로 생긴다. 상승하여 하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茯苓을 한탕 하부로 滲泄한다는 것으로만 개괄할 수는 없다. 이것이 『本經』에서 제시한 胸脅逆氣와 心下結痛과 寒熱煩滿欬逆을 主治한다는 뜻이다. 憂恚驚邪恐悸를 주관하는 것에 이르니 心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口乾舌焦를 주관하고 利小便하는 것은 腎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곧 다만 그 升淸과 降濁만으로 茯苓의 약물의 이치와 효능을 모두 포괄하지는 못한다. 대개 淸濁은 陰陽에 근본하고, 陰陽은 水火로 징조가 나타나며, 水火는 心腎에 속한다. 心은 안이 陰이고 밖이 陽으로서 상부에 위치하고, 腎은 안이 陽이고 밖이 陰으로서 하부에 위치한다. 茯苓의 쓰임은 능히 陰中에서 陽을 흡수하여 陰으로 되돌려 보내고, 또한 능히 陽中에서 陰을 이끌어내어 陽으로 되돌려보낸다. 그러므로 茯苓을 복용하면 心은 陰이 陽 속에 자리 잡고 火를 주관하면서 아래로 水와 교합하고 水中의 火는 저절로 地氣를 따라 깊이 저장되며, 腎은 陽이 陰 속에 자리 잡고 水를 주관하면서 위로 火와 교합하며 火 밖에 있는 水는 스스로 天氣를 따라서 發育한다.⁴⁵⁾⁴⁶⁾

45) 鄒澗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87-93. “劉潛江云, 茯苓本古松靈氣, 淪結成形. …… , 且甘先入脾, 淡主養胃, 是其功在中土而升淸陽, 就其升陽, 卽以爲洩濁之用, 故在上焦, 而同益氣同驅痰. 在下焦, 而同導水同健脾, 莫不以是爲升, 卽升降降, 固未可徒以下滲概之, 此本經主胸脅逆氣心下結痛寒熱煩滿欬逆之義也. 至其主憂恚驚邪恐悸, 非治心乎. 主口乾舌焦利小便, 非治腎乎. 則但謂其升淸降濁, 似尚未盡悉其物之理, 與其治之能者. 夫淸濁本之陰陽, 陰陽兆於水火, 水火屬之心腎, 心內陰外陽, 而位

鄒澗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茯苓에 대해 살펴보니, 茯苓의 효능이 中土에 있고 淸陽을 올리면 濁을 배설하게 된다고 한 것은 氣의 升降出入을 중시한 것이다. 또한 茯苓은 陰中에서 陽을 흡수하여 陰으로 되돌려보내고, 陽中에서 陰을 이끌어내어 陽으로 되돌려보낸다고 한 것은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또한 茯苓을 복용하면 心은 火를 주관하면서 아래로 水와 교합하고, 腎은 水를 주관하면서 위로 火와 교합한다고 한 것은 五行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14) 商陸

劉潛江이 이르기를, 商陸은 봄에 싹이 나오고, 여름과 가을에 개화하여 8~9월에 그 뿌리를 채취한다. 『本經』에서 主水腫癰瘕痺하고 熨除癰腫한다고 했는데, 어찌 陽을 인도하여 陰으로 들어가고 陰中の 氣分으로 되돌아가서 散結消腫하는 것을 취한 것이 아니겠는가. 곧 『別錄』에서 이른바 胸中邪氣와 水腫瘰癧와 腹滿洪을 치료하고, 五臟을 곧장 소통시켜 水氣를 흘리는 것이다. 무릇 가슴으로부터 배로 도달하여 마칩내 心肺에서 肝腎에 미치는 상황이 보여야 바야흐로 곧장 소통시킨다고 할 수 있다. 무릇 水는 陰이며, 腎은 五臟의 陰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商陸은 五臟의 氣를 곧장 소통시켜 腎으로 되돌려서 水氣를 흘린다. 腎은 능히 물을 모아 병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水로 하여금 혹 머물게 하거나 혹 행하게 하거나 마땅히 消散시켜서 병들지 않게 하는 것도 또한 오직 腎일 뿐이다. 비록 그러하나 옛 方書를 검토해 보니, 石水를 치료하는 檳榔散과 陽水를 치료하는 疏鑿飲子에 모두 商陸을 썼는데, 어찌 만연하여 선택이 없음을 혐오하지 않았겠는가. 두 처방에 모두 商陸을 쓴 것은 이른바 “急하면 標證을 치료한다.”는 뜻으로서 모두 陽氣를 인도하여 陰邪를 변화하고 陰邪를 소통시켜 陽氣를 인도하는 것일 뿐임을 모르는 것이다.

於上, 腎內陽外陰, 而位於下, 茯苓之用, 能於陰中吸陽以歸陰, 又能於陽中引陰以歸陽, 是故在上者陰宅陽中, 則火有所主, 而下交於水, 水中之火, 自從地氣而蟄藏, 在下者陽宅陰中, 則水有所主, 而上交於火, 火外之水, 自從天氣而發育.”

46) 鄒澗 著, 林鎭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pp.141-147.

대개 陽水의 근본은 陰虛에서 말미암으며, 陽이 능히 변화시킬 수 없어서 標病이 심한 경우에는 곧 陰邪이다. 陰水의 근본은 陽虛에서 말미암으며, 陰이 능히 변화시킬 수 없어서 標病이 심한 경우에도 역시 陰邪이다. 동일하게 陰邪는 標證이 된다.47)48)

鄒澍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商陸에 대해 살펴보니, 陽氣를 인도하여 陰中 氣分으로 들어가 散結消腫하고, 五臟의 氣를 곧장 소통시켜 水氣를 흡수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陽氣를 인도하여 陰邪를 변화하고 陰邪를 소통시켜 陽氣를 인도함으로써 水腫을 치료한다고 한 것은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15) 蘇

蘇는 紫色이고 가운데가 비어 있으므로 능히 血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것이 옳지만, 劉潛江이 氣分으로 들어간다고 한 것이 더 낫다. 紫蘇는 즐기와 잎은 맛이 맵고 달지만, 매운맛이 우세에 있고 단맛이 열세에 있다. 2~3월에 씨를 심고, 8~9월에 수확하며, 잎의 채취는 5~6월에 아직 꽃이 피기 전에 한다. 무릇 大火가 주관하는 시기에 매운 약물을 채취하는 것이니 어찌 火가 金을 쓰는 것을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金이 火의 쓰임이 되면 氣化한다. 火는 원래 水中에서 나오고, 金은 진실로 水의 어머니가 된다. 陽이 陰을 얻지 못하면 변화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쓰임의 대략을 下氣除寒中이라고 하

는데, 바로 그 색이 붉어서 心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心火는 진실로 氣의 신령이며, 매운맛은 肺로 들어가는데, 肺金은 진실로 氣의 주인이다. 金火가 德을 합치면 그 氣가 온화해지니, 이것이 心肺가 합하여 諸陽을 영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자연히 脾胃로 되돌아간다. 왜냐하면 매운맛 뒤에 단맛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盧子繇가 紫蘇의 작용을 '宣發'만 취하지 않고 또한 '宣攝'을 언급한 것은 그 뜻이 또한 매우 정밀하고 마땅하다. 대개 肺는 陽中의 少陰으로 陽이 陰을 얻지 못하면 氣가 변화하지 않는다. 金은 火의 쓰임을 받으면 氣化하고, 氣化하면 그 宣發을 지극히 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오직 陰은 陽이 지키고, 陽은 陰이 없으면 火가 참람하여 氣도 또한 퍼지지 못하지만, 金이 火의 쓰임을 받으면 퍼지는 가운데 거두어들이는 작용이 있다. 궁구해보건대 거두어들이는 작용도 또한 宣發을 완성하는 것일 뿐이다.49)50)

鄒澍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蘇에 대해 살펴보니, 金이 火의 쓰임이 되면 氣化하고, 火는 원래 水中에서 나오고, 金은 진실로 水의 어머니가 된다거나 金火가 德을 합치면 그 氣가 온화해진다고 하는 것은 五行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또한 陽이 陰을 얻지 못하면 氣가 변화하지 않는다고나 陽은 陰이 없으면 火가 참람하여 氣도 또한 퍼지지 못한다고 한 것은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47) 鄒澍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282-283. “劉潛江云, 商陸春生苗, 夏秋開花, 八九月乃採其根, 本經用以主水腫疔瘰癧除癰腫, 豈非取其導陽入陰, 歸於陰中氣分以散結消腫耶. 卽別錄所謂療胸中邪氣, 水腫痿痺, 腹滿洪, 直疏五臟, 散水氣. 夫亦自胸而腹, 遂并見其由心肺而及肝腎, 方得謂之直疏. 夫水陰也, 腎納五臟之陰者也. 直疏五臟氣以歸腎, 令水氣散, 以腎能聚水生病, 則使水或留或行, 宜消宜散, 不爲病者亦惟腎耳. 雖然, 檢古方書有治石水之檳榔散, 及治陽水之疏鑿飲子, 均用商陸, 豈不嫌其漫無別擇乎. 不知兩者之用商陸, 所謂急則治標之義, 皆取其導陽氣以化陰邪, 疏陰邪以導陽氣耳. 蓋陽水之本由於陰虛, 陽不能化而標病之甚者, 乃陰邪也. 陰水之本由於陽虛, 陰不能化而標病之甚者, 亦陰邪也.”

48) 鄒澍 著,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 下. 서울. 아티전. 1999. pp.450-452.

49) 鄒澍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235-236. “其色紫中空, 能入血脈則難矣, 劉潛江之言其入氣分, 猶有進於是者. 紫蘇莖葉味辛有甘, 辛勝甘劣, 以二三月下種, 八九月收成, 而採其葉, 則於五六月當未吐花時. 夫以大火之令, 而採味辛之物, 豈不以全火之用金乎. 金爲火用則氣化, 以火原出水中, 而金固爲水母, 陽不得陰不能化也. 故其爲用之大概, 曰下氣除寒中, 正以其色赤入心, 心火固氣之靈, 味辛入肺, 肺金固氣之主, 金火合德, 其氣溫和, 是心肺合而營諸陽也. 若然, 則自能歸脾胃, 所以其味辛後有甘也. 乃子繇不特取其宣發, 且有藉其宣攝者, 其義亦甚精當. 蓋肺爲陽中之少陰, 陽不得陰, 則氣不化, 金爲火用則氣化, 氣化則極其宣發, 此易知也. 惟陰爲陽守, 陽無陰則火僭而氣亦不宣, 金爲火用, 則宣中有攝, 究之攝亦所以成其宣耳.”

50) 鄒澍 著,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pp.378-379.

16) 消石

劉潛江이 이르기를, 朴消와 消石은 水와 火로 구분하지만, 근원은 모두 水이며 모두 熱을 다스리니, 어째서인가. 무릇 水消는 熱의 응결을 치료한다. 응결은 대부분 血분에 속하는데, 이른바 “陰이 하강하지 않으면 陽이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능히 陰中の 陽結을 운행할 수 있으면 陰이 하강하여 陽이 저절로 변화한다. 火消는 熱의 울체를 치료한다. 울체는 대부분 氣분에 속하는데, 이른바 “陽이 상승하지 않으면 陰이 펼쳐지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능히 陽中の 陰鬱을 퍼뜨리면 陽이 변화하여 陰이 저절로 펼쳐진다. 그 뜻에 나아가서 변별해보면 또한 큰 차이가 있다. 水消는 짠맛이 우세하고 약간 쓰다. 짠맛에 근본하여서 아래로 내려가 火의 근원으로 되돌아간다. 火消는 매운맛이 우세하고 또 짠맛도 있는데 水消보다는 못하고, 쓴맛은 水消보다 더 있다. 火消는 매운맛에 근본하여서 위로 올라가 바로 火의 쓰임을 달성한다. 火消를 불속에 던지면 불꽃이 생기지만, 水消는 그렇지 않다. 불에 넣어서 불꽃이 생기는 것은 火와 같은 氣이기 때문이며 불에 넣어도 불이 붙지 않는 까닭은 水는 진실로 火를 이기기 때문이다. 다만 두 가지 모두 ‘消’라고 지칭하였으므로 모두 능히 단단한 것을 깨뜨리고 응결된 것을 연다. 천지 사이에 사람과 만물이 생기는 근본은 모두 水와 火에 근본하지 않음이 없다. 사람과 만물을 낳는 것이 水火이니,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도 또한 능히 水火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다만 무엇을 내러서 운행시키고 무엇을 울려서 발산할지 결정할 때에는 證을 살피고 脈을 살펴 적절히 쓰는 것이 귀하다. 그래서 반드시 원인에 맞게 적절하게 조치해야 한다. 곧 水消는 차가운 성질로 熱을 변화시키고, 짠맛으로 단단함을 변화시키므로 진실로 한탕 순수한 陰일 뿐만이 아니다. 무릇 孤陰이 어찌 능히 陽의 응결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미루어보건대 火消도 또한 이와 같다. 51)52)

51) 鄒澍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5-8. “劉潛江云, 朴消消石, 水火攸分, 然同源於水, 同歸於治熱. 何歟. 夫水消治熱之結, 結則多屬血分, 所謂陰不降陽不化者也, 能行陰中之陽結, 則陰降陽自化矣. 火消乃治熱之鬱, 鬱者多屬氣分, 所謂陽不升陰不暢者也, 能達陽中之陰鬱, 則陽化陰自暢矣. 卽就其味辨之, 則亦有大異者, 水消以

鄒澍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消石에 대해 살펴보니,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하였다.

消石은 水消(=朴消)와 火消(=消石)로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水에 근원하고 熱을 다스리며 破堅開結하는 효능이 있다. 불속에 넣었을 때 불꽃이 이는 火消는 熱이 울체된 것을 다스리는데, 陽이 상승하지 못하면 陰도 펼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火消를 써서 陽中の 陰鬱을 퍼뜨리면 陽이 변화하여 陰이 저절로 펼쳐진다. 水消는 熱이 맺힌 것을 다스리는데 陰이 하강하지 않으면 陽도 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水消를 써서 陰中の 陽結을 운행시키면 陰이 하강하여 陽이 저절로 변화한다. 이는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17) 柴胡

劉潛江이 이르기를, 經에서 말하기를, “五臟은 精氣를 저장하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며, 六腑는 음식물을 傳化하며 저장하지 않는다.”고 했고, 또한 말하기를, “腦, 髓, 骨, 脈, 膽, 女子胞 이 여섯 기관은 地氣로 생기며 모두 陰을 저장하며 땅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저장하되 내보내지 않는다.”라고 했다. 膽은 비록 腑이지만 실제로 胃, 大腸, 小腸, 三焦, 膀胱이 天氣가 날아 음식물을 傳化하고 저장하지 않는 것과 다르다. 膽은 陽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陰의 본체를 갖추고 있다. 이로써 陽中の 少陽이며 五臟을 인도하고 거느리며 陰에 뿌리를 두고 陽까지 도달한다. 그러나 五腑의 達陽은 그 쓰임이 瀉에 있고, 膽의 達陽은 그 쓰임이 不瀉에 있으니, 흡사 봄에 발생하는 氣를 본떠서 만가지 변화를 가장 먼저 퍼뜨리며 응솟음쳐 나오는데 陽으로 나왔지만 陰에서 완전히

鹹勝, 卻帶微苦, 本於鹹而就下, 卽以歸火之原也. 火消以辛勝, 亦有鹹, 但大遜於水消, 苦則稍加, 本於辛以上際, 正以達火之用也. 火消投之火中則焰生, 水消則否. 入火生焰者, 與火同氣也. 入火不語者, 水固勝火也. 但二物均以消得名, 則俱能破堅開結. 緣天地間生人生物, 未有不本於水火者, 生之者水火, 化之又能外水火乎. 第各就其孰爲宜降而行, 孰爲宜升而散, 審證察脈, 貴有攸當, 所謂適事爲故可耳. 卽如水消之能以寒化熱, 以鹹化堅, 固不徒純陰而已. 夫孤陰豈能化陽之結耶. 推之火消, 亦猶是矣.”

52) 鄒澍 著, 林鎭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pp.12-17.

떨어진 것도 아니다. 이로써 膽은 半表半裏가 된다. 柴胡는 仲冬에 뿌리에서 하얀 싹이 나오고, 仲春에 싹이 나오며, 仲夏에 매우 무성해지고, 仲秋에 열매가 열린다. 柴胡는 陽氣가 처음 발생할 때에 싹이 트고 陰氣가 평정될 때에 시들며, 그 향기는 하늘까지 도달하고 質이 부드러우니, 온전히 少陽의 뜻에 합치되며, 柴胡는 半表半裏에서 和解하는 약물이며, 膽의 상승하고 生發하는 氣를 도와서 나머지 臟에서 결단을 하게 한다. 그렇다면 柴胡는 이미 升陽을 쓰임으로 삼는데, 陰에 가까운 질병에는 무관한다. 陰陽은 動과 靜으로 나뉘며, 靜중에 動이 있고, 動중에 靜이 있다. 柴胡는 仲冬에 뿌리에서 하얀 싹이 나오는데, 이것이 靜中の 動이다. 이런 뜻을 안다면 陰中の 陽을 퍼뜨린다는 말은 어찌 다만 陽이 陰을 뚫고 나오는 것만 지칭하겠는가. 곧 陽을 감싸고 저장하던 陰도 모두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陽이 상승할 때 陰도 잠시라도 떨어질 수가 없다. 柴胡를 써서 升擧하면 이에 폐단이 없다. 대개 柴胡는 다만 暢陽할 뿐만이 아니라 실로 능히 陰도 들어올리며, 울체된 陽을 퍼뜨려서 정체된 陰을 변하게 할 뿐 아니라 아울러 능히 陽이 앞장서면 陰이 따르게 할 수 있다. 이로써 心腹과 腸胃 사이에 응결한 것이 전부 풀리고, 오래 묵은 것이 전부 새롭게 된다. 비유하면 봄의 기운이 한 번 회전하면 만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과 같아 그렇게 되기를 기약하지 않았지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무릇 그렇다면 六氣가 울체됨으로 인하여 升降의 氣機가 막힌 경우에는 장차 柴胡를 써서 그 樞를 회전시킬 것이다. 무릇 肝膽에서 陽이 상승하면 陰이 곧 따르는 것은 脾腎의 陰은 원래 肺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肺는 陽中の 少陰으로 三陰의 氣가 陽中の 陰에 도달하여 저절로 하강하면 陽도 또한 따라서 내려간다. 대개 下焦의 陰이 풍부해지면 반드시 먼저 陽이 선도하는 힘을 빌려 상행하여 교류하고, 上焦 陽이 풍부해지면 또한 반드시 먼저 陰이 선도하는 힘을 빌려 내려가서 쌓인다. 따라서 三陰 經脈이 상행하고, 三陽 經脈이 하행하려면 선도하는 것이 있어야 잘 소통된다. 53)54)

鄒澗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柴胡에 대해 살펴보니, 柴胡가 울체된 陽을 퍼뜨려서 정체된 陰을 변하게 할 뿐 아니라 陽이 앞장서면 陰이 따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등은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心腹과 腸胃 사이에 응결한 것이 전부 풀리고, 오래 묵은 것이 전부 새롭게 되며, 升降의 氣機가 막힌 경우 柴胡를 써서 그 樞를 회전시킨다는 것은 氣의 通達을 중시한 것이다. 또한 下焦의 陰이 풍부해지면 陽이 선도하는 힘을 빌려 상행하여 교류하고, 上焦 陽이 풍부해지면 陰이 선도하는 힘을 빌려 내려가서 쌓인다고 하는 것 등은 氣의 升降出入을 중시한 것이다.

18) 五味子

劉潛江이 이르기를, 五味子の 껍질과 육질은 처음에는 시지만 나중에는 단맛이 나는데, 단맛은 적고 신맛이 많다. 내부에 있는 核은 처음에 맵지만 나중에는 쓰며, 매운맛은 적고 쓴맛이 많다. 그리고 껍질, 육질, 核에 전부 짠맛이 있다. 대략 五味子는 五味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그 중에서 신맛이 제일 우세하고 쓴맛이 그 다음이다. 五味子는 봄에 싹이 돋

者, 傳化物而不藏. 又曰, 腦髓骨脈膽女子胞, 此六者, 地氣之所生也, 皆藏於陰而象於地, 故藏而不瀉, 是膽雖爲腑, 實不與胃大小腸三焦膀胱, 同爲天氣之所生, 傳化物而不藏矣. 居陽之位, 稟陰之體, 是以爲陽之少, 倡率五臟, 根陰達陽. 然五腑達陽, 其用在瀉, 膽達陽, 其用在不瀉, 恰象春生之氣, 首暢萬化, 奮決而出, 出乎陽, 未離乎陰, 是以爲半表半裏也. 柴胡於仲冬根生白藟, 於仲春生苗, 於仲夏極茂, 於仲秋成實, 隨陽氣始生而萌, 至陰氣既平而萎, 其香微霄, 其質柔輕, 全有合乎少陽之義, 此所以爲半表半裏和解之劑, 能助膽行上升生發之氣, 爲十一臟所取決矣. 然則柴胡既以升陽爲用, 將無與於比陰之病歟. 曰陰陽分於動靜, 靜中有動, 動中有靜. 柴胡於仲冬根生白藟, 是靜中有動也, 識此義, 則所云能達陰中之陽者, 何止舉陽之透陰而出哉. 即舉陰之包陽而藏者, 悉皆托出矣, 必陽上徹而陰未能須臾與離, 用此升擧, 乃爲無弊. 蓋柴胡非徒暢陽, 實能舉陰, 非徒能暢鬱陽以化滯陰, 並能俾陽唱陰隨, 是以心腹腸胃之間, 無結不解, 無陳不漸, 譬之春氣一轉, 萬化改觀, 自有不期然而然者矣. 夫然則六氣因鬱而升降之機阻者, 將可並用柴胡以轉其樞乎. 夫肝膽陽升陰即隨之者, 以脾腎之陰原至於肺也, 肺爲陽中少陰, 三陰之氣至於陽中之陰自降, 陽亦隨降矣. 蓋下之陰裕, 必藉陽之先導以爲上際, 上之陽裕, 亦必資陰之先導以爲下蟠, 故三陰之經脈上行, 三陽之經脈下行, 固有爲之先導者而得通也.”

53) 鄒澗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37-41. “劉潛江云, 經曰, 五臟者, 藏精氣而不瀉, 六腑

54) 鄒澗 著,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pp.63-69.

고, 봄과 여름이 교차하는 시기에 꽃이 피며, 가을에 열매가 열린다. 이는 木에서 출발하여 火에서 왕성해지고 金에서 완성을 고하는 것이다. 신맛이 이에 우세하니, 이것이 肺가 肝에서 교합하는 것이다. 肺가 肝에서 교합하면 肝이 肺와 교합함으로 인하여 脾에 이르고, 脾는 인하여 肺와 합하여서 腎으로 되돌아간다. 이는 足三陰의 氣를 갖추고 수렴하여 하강하는 뜻으로 陰도 또한 이를 따른다. 氣는 味에 의존하여 腎에 이르는데, 腎은 納氣하는 곳이 아닌가. 이것이 『本經』의 主治에서 처음에 益氣를 언급하고 이어서 欬逆上氣를 말한 것이다. 다만 勞傷과 補不足과 強陰과 益精은 무엇인가. 대개 腎은 五臟六腑의 精을 받아서 저장하며, 肺도 또한 五臟六腑의 氣를 통솔하여 주관한다. 腎氣는 원래 위로 肺와 교류하고, 肺氣도 역시 아래로 腎으로 되돌아간다. 대개 一氣로써 스스로 升降을 하는 것이다. 만약 六淫七情으로 氣를 소모하고 흩어버리면 肺가 하강하지 못하여 腎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腎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元氣가 마침내 소모되어 날로 허약해진다. 腎으로 되돌아가면 眞氣가 근본으로 되돌아가서 날로 건강해진다. 五味자는 능히 모든 氣를 수렴하여 腎으로 들어오게 한다. 腎으로 들어오면 곧 五臟六腑의 精이 되며, 腎이 받아서 그것을 저장한다. 『陰陽應象大論』에서 말하기를, “氣가 精으로 되돌아가고, 精이 변화하여 氣가 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말하기를, “精이 氣를 먹고, 氣는 形을 낳는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氣가 왕성하면 精이 증만해지는 징험이 아니겠는가.55)56)

55) 鄒澍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73-78. “劉潛江云, 五味之皮肉, 初酸後甘, 甘少酸多, 其核先辛後苦, 辛少苦多, 然俱帶鹹味, 大約五味咸具之中, 酸爲勝, 苦次之. 以生苗於春, 開花於春夏之交, 結實於秋, 是發於木, 盛於火, 告成於金也. 氣告成於金, 酸味乃勝 是肺媾於肝也. 肺媾於肝, 肝因媾肺而至脾, 脾仍合肺以歸腎, 是具足三陰之氣收之以降, 陰亦隨之矣, 氣依味至腎, 腎非納氣者歟. 此本經主治所以首益氣, 卽繼以欬逆上氣也. 第所云勞傷補不足, 強陰益精者何. 蓋腎者主受五臟六腑之精而藏之, 肺亦統五臟六腑之氣而主之, 腎氣原上際於肺, 肺氣亦下歸於腎, 蓋以一氣自爲升降者也. 若六淫七情有以耗散之, 至肺失其降而不歸, 不歸則元氣遂耗散以日虛, 歸腎則眞氣還其本源以日益. 五味子能收諸氣入腎, 入腎卽爲五臟六腑之精, 腎受而藏之矣. 陰陽應象大論曰, 氣歸精, 精化爲氣, 又曰, 精食氣, 氣生形, 是非氣盛則精盈之驗乎.”

56) 鄒澍 著, 林鍾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진. 1999.

鄒澍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五味子에 대해 살펴보니, 五行의 상호 작용을 중시하였다.

五味子는 酸苦甘辛鹹 등의 五味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봄에 싹이 돌아 늦봄에 꽃이 피며 가을에 열매가 열리니, 木에서 출발하여 火에서 왕성해지고 金에서 완성하는 것이다. 五味子는 五味를 모두 갖추고 있으나, 金의 속성을 지닌 열매가 木의 속성을 지닌 신맛이 가장 우세하므로 이를 肺와 肝이 교합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五味子는 益精하는데, 이를 上焦의 肺와 下焦의 腎을 중심으로 승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元氣가 충족되어 氣歸精하므로 益精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五行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19) 薏苡仁

劉潛江이 이르기를, 胃는 五臟六腑의 바다로, 清氣는 위로 肺에 주입되어 호흡을 통한다. 능히 위로 肺에 주입하게 하는 것은 진실로 脾에서 말미암는다. 脾氣는 腎과 합하여 肺에 이르고, 肺氣는 心과 합하여 腎에 되돌아가다. 이런 순환은 고리처럼 끝없이 계속하며 이런 과정으로 血氣를 운행시키고 陰陽을 영위한다. 만약 胃氣가 虛하면 脾가 상승하지 못하여 濕이 치성해져 熱로 변화하고, 熱이 다시 胃脘의 陽에 모여 氣를 손상한다. 胃陽이 항진되면 肺가 하강하지 못하고 熱이 치성하여 濕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시 脾臟의 陰을 꺾박하여 血을 손상한다. 氣를 손상하면 肺가 그것을 받으므로 혹 氣가 막혀서 胸痺나 偏緩이 생기고, 혹은 陰을 손상하여 肺痿나 肺癰이 되고, 혹은 肝을 손상하여 筋急拘攣하게 된다. 血을 손상하면 脾가 그것을 받으므로 혹 下陷하여 설사를 하거나 혹 옆으로 넘쳐서 水病이 되거나 혹 經絡으로 스며들어 막아서 久風濕痺가 되거나 혹 하부에 고여 阻滯되어 癰疽重墜가 된다. 薏苡仁은 평평한 연못에서 발생하며 氣가 차고 맛이 달다. 이는 水와 土의 德이 합친 것이다. 이에 한여름에 열매를 맺으니, 이는 潤下하는 氣를 다시 태워 올리는 것이다. 늦가을에 열매를 거두니 이는 뜨겁게 떠오르는 氣를 반대로 식혀서 내려보낸다. 따라서 薏苡仁은 胃

pp.118-125.

가 地氣에 도달하면 濕이 熱로 변하는 病에 걸리지 않고, 胃가 天氣에 도달하면 熱이 濕으로 변하는 病에 걸리지 않는 점에 부합한다. 그래서 앞에 제시한 모든 證을 능히 치료할 수 있다. 그러므로 寇氏는 말하기를 “脾가 건강하면 陰陽을 능히 運化할 수가 있고, 脾가 건강하지 못하면 대부분 濕으로 곤란을 겪는다.”라고 하였다. 薏苡仁은 健脾하여 오직 脾肺腎의 氣를 暢達하게 하여 濕을 머물지 못하게 할 뿐이다. 그러므로 濕을 없애면 능히 清熱할 수 있다. 이른바 “陰陽이 합쳐야 氣가 생기고, 陰陽이 조화로워야 氣가 운행한다.”는 것이 이것이다.⁵⁷⁾⁵⁸⁾

鄒澍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薏苡仁에 대해 살펴보니, 五行의 상호 작용을 중시하였다.

薏苡仁은 깊은 연못이 아니라 평평한 연못에서 발생하므로 水와 土의 德이 합해지고, 또한 寒性은 水에 속하고 甘味는 土에 속하여 水와 土의 德이 합해진다.

薏苡仁은 健脾하며, 健脾하면 中焦에 있는 脾胃의 축을 중심으로 氣가 升降이 이루어져 如環無端하게 돌아가 氣血을 운행하고 陰陽을 영위하는데, 만약 胃氣가 虛하거나 胃陽이 항진되면 濕熱이 발생하여 傷氣血하고, 胃가 地氣에 도달하여 腎과의 교류가 일어나고 胃가 天氣에 도달하여 肺와의 교류가 일어나면 저체되고 울체되어 발생하는 濕熱病이 일

어나지 않게 된다. 薏苡仁은 水土合德이나 肺脾腎과 연관지어 설명한 것은 五行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20) 紫菀

劉潛江이 이르기를, 經에서 말하기를, “宗氣는 胸中에 쌓였다가 목구멍으로 나오며 心脈을 꿰고 호흡을 한다.”라고 했다. 이는 金火合德을 해야 氣가 이에 행함을 말한 것이다. 무릇 肺는 氣를 주관하며, 胸中은 진실로 肺가 다스리는 곳이다. 그러나 반드시 心脈을 관통하여 호흡을 하는 것은 心이 脈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脈은 곧 血이 머무르는 곳으로 離中에 끼어 있다. 그러므로 火가 水에서 나오면 氣가 생기고, 水가 火에 도달하면 血이 化한다. 이는 元氣를 呼吸하는 근본이 실로 아래로 腎에 뿌리를 두고, 위로 心에서 주관함이지 肺氣가 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설령 水가 火에 이르지 않으면 氣는 능히 化할 수 없다. 이에 火가 마침내 金에 작용하지 못하고 肺가 허해진다. 肺가 虛해지면 欬逆上氣가 일어난다. 다시 火가 金에 합하지 못하고 金을 형벌주면 가볍게는 喘欬가 나타나고, 중증일 때는 欬唾膿血이 나타나며 또한 허해져서 勞瘵가 되기도 한다. 紫菀은 紫色이며 재질이 부드러운데, 水와 火가 합한 것이다(紫色은 赤色과 黑色이 서로 섞인 것이고, 무릇 만물은 삶으면 부드러워지는데, 이것이 水火合德이다). 맛은 쓴맛이 우세하고 매운맛이 열세에 있어 火가 金에 작용한다. 水가 이미 火와 더불어 합하고, 火가 이미 金에 작용하는데, 어찌 胸中の 寒熱結氣가 흩어지지 않으며 欬逆上氣가 없어지지 않을까.⁵⁹⁾⁶⁰⁾

57) 鄒澍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49-53. “劉潛江云, 胃爲五臟六腑之海, 其清氣上注於肺, 以通呼吸, 其所以能上注於肺者, 實由於脾. 脾氣合於腎以至肺, 肺氣合於心以歸腎, 如環無端, 乃能運血氣, 營陰陽, 若胃氣虛, 則脾不上升, 濕盛化熱, 還湊於胃脘之陽以傷氣, 胃陽亢則肺不下降, 熱盛生濕, 還迫於脾臟之陰以傷血. 傷氣者肺受之, 故或阻其氣, 爲胸痺偏緩, 或損其陰, 爲肺痿肺癰, 或肆其所勝, 爲筋急拘攣. 傷血者脾受之, 故或下陷爲泄, 或旁溢爲水, 或滲經絡爲久風濕痺, 或溜阻下部爲癰疽重墜. 薏苡生於平澤, 氣寒味甘, 是水土合德, 乃結實於盛夏, 是潤下之氣, 還就炎上, 而採實期於秋末, 是熱浮之氣, 反歸涼降, 有合於胃達地氣, 而後不病於濕之化熱, 更合於胃達天氣, 而後不病於熱之化濕. 學前證得能治之. 故寇氏曰, 健脾則能運化陰陽, 脾之不健, 多因於濕, 意以健脾, 惟使脾肺腎之氣得暢, 使濕不留而已, 故去濕即能清熱, 所謂陰陽合而氣生, 陰陽和而氣行是也.”

58) 鄒澍 著,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pp.83-88.

59) 鄒澍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176-177. “劉潛江云, 經曰, 宗氣積於胸中, 出於喉嚨, 以貫心脈而行呼吸. 是非金火合德, 氣乃行乎. 夫肺爲氣主, 胸中固肺所治也. 然必貫心脈以行呼吸者, 緣心爲脈主. 脈乃血舍, 由離中有坎, 故火出於水而氣生, 水至於火而血化. 是元氣呼吸之本, 實下根於腎, 上主於心, 非肺氣所能獨治也. 設使水不至於火, 而氣不能化血, 於是火遂不爲金用而肺虛, 肺虛則欬逆上氣作矣. 更火不合於金而刑於金, 輕則喘欬, 重則欬唾膿血, 且有虛而成勞者矣. 紫菀色紫質柔, 爲水與火合(紫者, 赤黑相兼也. 凡物煮之則柔, 是爲水火合德). 其味苦勝辛劣, 爲火爲金用. 水既與火合, 火既爲金用, 寧有胸中寒熱結氣不散, 欬逆上氣不除者耶.”

60) 鄒澍 著,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鄒澗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紫菀에 대해 살펴보니, 五行의 상호 작용을 중시하였다.

紫菀은 紫色을 지니고 있는데, 紫色은 火에 속하는 赤色과 水에 속하는 黑色이 서로 섞인 색으로 水火合德한 것이다. 또한 紫菀은 재질이 부드러운데 어떤 물건이든 水와 火를 함께 써서 삶으면 부드러워지므로 水火合德한 것이다. 水火合德을 말한 것은 호흡을 주관하는 것이 다만 肺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心腎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말한다. 紫菀은 또한 火에 속한 쓴맛이 우세하고 金에 속한 매운 맛이 열세에 있어 火가 金에 작용하는데, 그 작용이 克하는 작용이 아니라 金火合德하여 心脈을 뚫고 호흡을 행하므로 胸中의 寒熱結氣가 흩어지고, 欬逆上氣가 없어지게 된다. 이는 모두 五行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21) 麩蟲

劉潛江이 이르기를, 仲景은 畜血證을 치료함에 水蛭과 虵蟲을 썼는데, 乾血을 치료할 때는 다시 麩蟲과 蟻螞를 더하여 썼다. 이는 化血하고 導血하여 水蛭과 虵蟲이 功을 이루도록 돕고 사나움을 구제하여 찢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니, 乾血은 虛勞로 인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험삼아 鼈甲煎丸을 보니, 다만 麩蟲과 蟻螞만 쓰고 虵蟲과 水蛭을 쓰지 않았다. 그러므로 破血의 功이 麩蟲과 蟻螞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產後瘀血腹痛에 抵當湯을 씌우면 大黃과 桃仁은 그대로 쓰고 虵蟲과 水蛭을 대신하여 麩蟲을 쓴 뜻을 또한 가히 생각해볼 수 있다.⁶¹⁾⁶²⁾

鄒澗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麩蟲에 대해 살펴보니, 蓄血證에 水蛭과 虵蟲을 쓰지만, 肌膚甲錯

등의 증상이 있는 乾血에는 水蛭과 虵蟲 외에도 麩蟲, 蟻螞 등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 水蛭과 虵蟲의 작용을 돕는다고 하는 등 瘀血을 다스림에 있어서 破血, 化血 등의 정도 차이를 말했다.

22) 赤白石脂

盧子繇의 말에 대해 劉潛江이 평하기를, 돌 속 기름은 뼈 속의 골수와 같다. 그래서 돌을 갈라서 가운데를 쓰며 반드시 입술과 혀바닥에 붙는 것을 쓴다. 이런 사실로 『本經』의 補髓益氣를 증명할 수 있다. “髓는 精氣가 변화하고 氣가 응축한 것이다.”라는 말은 陰中에서 陽을 축적하고 변화하여 응축으로 귀결하였지만 아직 변화에서 떠나간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石脂는 돌 속 精氣가 기름으로 응축한 것으로서 氣가 흩어지고 모이지 않아서 생긴 질병을 치료한다. 이때 기름에만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기름을 변화시키는 氣로 흩어지는 氣에 작용하는 것이다.⁶³⁾⁶⁴⁾

鄒澗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赤白石脂에 대해 살펴보니,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하였다.

石脂는 돌 속의 기름으로 이는 마치 뼈 속의 골수와 대비하여 말할 수 있는데, 뼈 속의 骨髓는 精氣가 변화된 후에 다시 응축된 것으로, 이를 陰陽으로 나타내면 陰中에서 陽을 축적하고 변화하여 다시 응결되었으나, 여전히 변화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어서 변화에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石脂는 氣가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병이 되는 것을 치료할 수 있는데, 다만 脂의 의미를 취하는 것 외에도 脂를 변화시키는 氣로 흩어지는 氣에 작용한 것이며, 이는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pp.281-282.

61) 鄒澗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217-218. “劉潛江云, 仲景治畜血用水蛭虵蟲, 治乾血則復加麩蟲蟻螞, 爲其能化血導血, 助水蛭虵蟲以成功, 而不濟其悍以致決裂, 爲乾血因於虛勞故也. 試觀鼈甲煎丸, 止用麩蟲蟻螞, 而置虵蟲水蛭, 則可知破血之功, 不在麩蟲蟻螞矣. 產後瘀血腹痛, 仍用抵當湯內之大黃桃仁, 卻以麩蟲代虵蟲水蛭, 其義亦可思矣.”

62) 鄒澗 著, 林鎭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pp.349-350.

63) 鄒澗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13-14. “劉潛江述盧子繇之言, 謂石中之脂, 如骨中之髓, 故揭兩石中取之, 又必用黏綴唇舌者, 以證本經之補髓益氣, 以謂髓者精氣所化, 氣化所凝, 從陰中畜陽爲化而歸於凝, 凝而未離於化, 是以取石中精氣有若凝爲脂者, 以對待渙散之氣不能翕聚而爲病, 是不特取意於脂, 且取其化脂之氣, 能爲渙散之氣用耳.”

64) 鄒澗 著, 林鎭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pp.24-26.

23) 皂莢

劉潛江이 이르기를, 皂莢 중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구멍을 뚫어서 生鐵을 넣어두면 곧 열매를 맺는다. 이는 木의 生化의 원천이 金에 있다는 것이다. 무릇 風木이 변하여 생긴 재앙은 모두 변하지 못하는 데에서 말미암는다. 風木은 陽에 속하는데, 陽이 상승해버려 陰을 얻어 변화하지 못하면 陰이 따르니, 이것이 바로 上竅가 막히는 이유이다. 만약 陽이 實하면 陰이 변하지 못하니, 이것이 下竅가 막히는 이유이다. 이런 것은 모두 風木의 변화가 곤궁한 것이다. 오직 皂莢만이 金의 매운맛을 얻고 水의 짠맛으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木이 金을 얻어 변화하여 水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에 잉태하고 기르는 것이 끝이 없다. 이른바 변화가 있어야 발생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다른 風藥은 몰아내고 흩어버리는 것을 功으로 삼아 진실로 皂莢과 많이 다르다. 65)66)

鄒澍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皂莢에 대해 살펴보니, 五行의 상호 작용을 중시하였다.

皂莢 중에 콩각지가 열리지 않는 경우 구멍을 뚫어 生鐵을 넣어 金氣를 강화시키면 콩각지가 열리게 되는데 이는 木의 生化의 원천이 金에 있다고 한 것이나 皂莢만이 金의 매운맛을 얻고 水의 짠맛으로 되돌아가니, 木이 金을 얻어 변화하여 水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 것 등은 五行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24) 知母

劉潛江이 이르기를, 知母는 맛이 달면서 쓰고, 쓴 맛에 다시 매운맛을 곁했다. 비록 쓴맛이 우세하지만 단맛에서 시작하여 매운맛에서 끝난다. 또한 4월에

꽃이 피니 火가 왕성한 절기에 氣가 가장 무성하다. 8월에 열매를 맺으니 金에서 氣가 잉태된다. 따라서 이것을 肺와 胃의 氣分으로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不可하다. 67)68)

鄒澍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知母에 대해 살펴보니, 知母는 비록 쓴맛이 우세하지만 단맛에서 시작하여 매운맛에서 끝나므로 土에 속하는 단맛과 胃를 연결하고, 金에 속하는 매운맛과 肺를 연결하여 肺胃의 氣分으로 들어간다고 한 것은 五行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25) 地黃

劉潛江이 이르기를, 地黃의 쓰임을 『本經』에서는 제일 먼저 血에 功을 돌렸다. 무릇 血은 天-의 眞陰에 근본을 두고, 중앙 五의 土氣의 도움을 받아 생긴다. 무릇 만물은 土에서 도움을 받아 生化하지 않음이 없는데, 오직 地黃은 흙 속에서 精을 취하는 것이 가장 전일하고 심하다. 그러므로 地黃을 심었던 땅은 흙이 곧 타고 써지게 되는데, 10년 후에야 바야흐로 다시 달게 되니, 地黃이 오로지 中焦의 蓄氣를 주관하지 않는다고 말하겠는가. 무릇 이미 沖氣의 도움을 받아 化生하고서 유독 涼血로 귀결되는 것은 어찌서인가. 대개 脾는 血을 統攝한다. 脾는 본체가 부드럽고 쓰임은 상승한다. 상승하는 것은 陽이 되고, 血은 陰에 속한다. 설령 脾가 통섭하는 陰이 이어지지 않으면 본체를 부드럽게 만들지 못하고 저절로 상승하여 陽氣는 더욱 치성해지고 陰은 더욱 허해져 길들여서 脾約에 이르게 된다. 經에서 말하기를, “至陽이 왕성하면 地氣가 부족하게 된다.”라는 말도 이것을 일컫는다. 이때에는 오로지 精氣가 가장 충실한 地氣를 보태주어야 본체가 부드러워지고 상래가 좋아진다. 다만 이른바 傷中은 무슨 의미인가. 무릇 中은 陰陽이 만나는 곳이다. 陽이 없으면 陰이 어찌 상승

65) 鄒澍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293-294. “劉潛江云, 皂有不結實者, 鑿孔貫以生鐵, 便能結莢, 是此木之生化原在 金也. 夫風木變莢, 由於不得化, 風木屬陽, 陽極於上, 不得陰以化, 則陰從之, 此上竅壅塞之所由, 若陽實而陰不化, 斯下竅壅塞之所由, 皆風木之化窮也. 惟皂莢得金之辛, 歸水之鹹, 是木得金化以趨水, 乃孕育而無窮. 所謂有化乃有生, 他風劑之以驅散爲功者, 固萬萬不侔也.”

66) 鄒澍 著,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pp.470-471.

67) 鄒澍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168-170. “劉潛江云, 味甘而苦, 苦復兼辛, 雖苦居其勝, 然以甘始, 以辛終, 且其四月花則氣暢於火, 八月實則氣孕於金, 是不謂其入肺胃氣分不可也.”

68) 鄒澍 著,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pp.270-273.

할 수가 있으며, 陰이 없으면 陽이 어찌 하강할 수가 있었는가. 升降의 樞는 氣血을 만드는 근원이다. 血은 眞陰이 순수하게 변한 것이다. 陽氣가 제대로 작용하면 血이 막히지 않으며, 陰氣가 견고하면 血이 연고 없이 밀로 새지 않는다. 그러므로 地黃은 陰이 陽을 구제하지 못하고, 陽氣가 血에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질병에 쓰는데, 이때에는 퍼뜨리는 藥이 된다. 이것이 『本經』에서 제시한 逐血痺와 除寒熱積聚라는 뜻이다. 무릇 地黃은 陰이 陽을 이기지 못하고 陽이 血을 뿔박하여 陰이 약해지는 경우에도 쓰는데, 이때는 거두어 들이는 약이 된다. 이것이 『別錄』에서 제시한 胞漏와 下血과 崩中과 血不止를 치료한다는 뜻이다. 69)70)

鄒澍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地黃에 대해 살펴보니,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하였다.

地黃은 土에서 精을 취하는 것이 가장 심하여 地黃을 심었던 땅은 10년이 지난 후에야 地力을 다시 회복할 정도인데, 地黃은 宣劑가 되기도 하고 攝劑가 되기도 한다. 陰이 陽을 구제하지 못하고 陽氣가 血에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血痺와 같은 질병에는 宣劑로 쓰이고, 陰이 陽을 이기지 못하고

陽이 陰을 뿔박하여 陰이 약해져 밀로 새는 胞漏와 같은 질병에는 攝劑로 쓰이는데, 이는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26) 醋

劉潛江이 이르기를, 식초의 쓰임은 신맛으로 수렴하는 작용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癰腫을 없애고, 癥塊 등의 諸證을 없애는 것을 주관함을 신맛으로 수렴한다고 하는 말로 어찌 능히 할 수 있겠는가. 대개 『尚書』에서 “木을 曲直이라고 하고, 曲直은 酸味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木은 본래 陽에 속하며, 陽이 울체되었다가 發하는 것이 이것이 酸味를 만드는 의미이다. 무릇 木은 본래 陰中の 陽으로 陽이 陰 속에 있어 떨치고 나오려고 하지만 아직 陰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 이처럼 陰 속에 陽이 쌓이면 陰이 陽을 얻어 퍼지는 오묘함이 있게 되니, 곧 天地人物이 나오는 기틀이다. 그렇다면 신맛은 그 효능이 모두 이와 같으나. 대개 오직 쌀로 만든 식초만 이런 효능이 있다. 무릇 粟은 胃氣를 크게 보익하며 心肺로 스며들어 氣血生化의 근원이 된다. 粟을 써서 빻어 식초를 만들어 肝과 德을 맞추면 능히 수렴하면서 능히 발산한다. 陽이 넘치는 것을 수렴하여 陰으로 되돌려 보내고 다시 陰이 막힌 것을 빼앗아 陽의 쓰임을 펼친다. 대개 血은 心이 능히 변화하는 것에 근본하고 뒤에 脾胃에서 생하게 하는 것이 있으며, 脾胃의 발생에 근본하고 뒤에 肝에 저장됨이 있으니, 다른 물건이 능히 이와 같겠는가. 71)72)

鄒澍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醋에 대해 살펴

69) 鄒澍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28-31. “劉潛江云, 地黃之用, 在本經即首歸其功於血. 夫血本天一之眞陰, 資中五之土氣以生者也. 夫萬物莫不資生化於土, 惟此味之取精於土者最專且酷, 故種植之地, 土便焦苦, 十年後方得轉甜, 得謂此味不專主中焦之營氣哉. 夫既資沖氣以化生, 獨以涼血歸之者何. 蓋脾統血, 其爲臟也, 體柔用升, 升爲陽, 血屬陰, 設其所統之陰不繼, 不足以柔其體, 而其用之升者自升, 於是陽益盛, 陰益虛, 馴至其脾爲約. 經曰, 至陽盛則地氣不足, 此之謂也. 於斯時也, 不以得地氣之最精且專者, 裕其所統, 又何以柔其體而善其後耶. 第所謂傷中者 義又云何. 夫中者, 陰陽之會也, 無陽則陰何則而升, 無陰則陽無所從而降, 升降之樞, 生氣生血之源也. 血乃眞陰之化醇, 陽能化則血何自而痺, 陰能固則血無緣而漏. 故凡病於陰不濟陽, 陽氣不能化血者, 用地黃則爲宣劑, 卽本經所謂逐血痺除寒熱積聚是也. 凡病於陰不勝陽, 陽迫血而陰不固者, 用地黃又爲攝劑, 卽別錄所謂治胞漏下血崩中血不止是也. 方書治虛勞, 有云實熱實極者, 均用地黃, 既云虛勞矣, 又何以云實也. 經曰, 精氣奪則虛, 邪氣盛則實, 因精氣之虛, 以致邪氣之實, 因邪氣之實, 益致精氣之虛, 故用地黃瀉其實在邪者, 卽救其虛在精者, 如補勞劣之味乃在其後, 是不可悟填骨髓長肌肉療跌折絕筋之義耶.”

70) 鄒澍 著,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pp.50-54.

71) 鄒澍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307-308. “劉潛江云, 醋之用類以爲取其酸收, 然主消癰腫, 除癥塊諸證, 酸收者何以能爾. 蓋尚書木曰曲直, 曲直作酸, 本屬陽, 陽鬱則發, 此作酸之義也. 夫木本陰中之陽, 陽在陰中, 奮決欲出, 而尚不能離陰, 是就陽畜陰中, 卽有陰得陽舒之妙, 乃天地人物之出機也. 然則酸味之物, 其功悉能若是耶. 蓋惟米醋爲能然也. 夫硬米大益胃氣, 沁心肺, 以爲生血化氣之源, 用以醱釀爲醋, 使合德於肝, 能收卽能散, 斂其陽之淫以歸於陰, 還以奪其陰之壅以舒其陽之用. 蓋血者本於心之能化而後有脾胃之生, 本於脾胃之生而後有肝之藏, 他物能如是哉.”

72) 鄒澍 著,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 下. 서울. 아티전. 1999. pp.493-494.

보니,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하였다.

醋는 신맛을 지니고 있어서 수렴하는 성질이 있지만 癰腫이나 癥塊 등의 질병을 다스리니, 이는 신맛이 지닌 이증성 때문이다. 즉 신맛은 木에 속하는데 木은 曲直이라고 하며 능히 收斂도 하고 능히 發散도 한다. 陽이 넘치는 것을 수렴하여 陰으로 되돌려보내고 다시 陰이 막힌 것을 빼앗아 陽의 쓰임을 펼친다고 한 것 등은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27) 朮(=白朮)

劉潛江이 말하기를, 白朮은 除濕益氣를 功으로 삼는데, 그렇다면 모든 濕에 白朮을 가히 쓸 수 있는가. 아니다. 무릇 濕은 마땅히 寒熱을 구분해야 한다. 寒에 속하는 것은 陽이 陰 속에 울체되어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고, 熱에 속하는 것은 陰이 陽 속에 막혀서 내려가지 못하는 것이다. 陽이 陰에 울체된 것은 氣虛이고, 陰이 陽에 막힌 것은 氣實이다. 氣虛는 곧 陽虛며, 氣實은 곧 陽盛이다. 이처럼 虛實이 모두 氣에 속하고 氣의 虛實은 모두 濕으로 변화한다. 무릇 濕은 地氣로, 陽이 陰에 울체된 것은 地氣가 天氣의 울체로 인하여 변화하지 못하고, 陰이 陽에 막힌 것은 地氣가 天氣의 아우름을 받아 변화하지 못하니 모두 능히 濕이 될 수 있다. 濕이 되는 것은 모두 陰으로 陰이 濕으로 변화되는 것은 모두 陽이 능히 化할 수 없는 데에 근본한다. 그러므로 한 번 虛하고 한 번 實함에 치료약을 투여함이 매우 다르다. 虛한 경우에는 補正하여서 益氣하니, 白朮이나 茯苓이 맞다. 實한 경우에는 邪氣를 없애서 益氣하니, 黃連·黃柏·梔子·黃芩 등이 맞다. 무릇 氣는 水穀에서 생기며, 液은 氣가 변화한 것으로, 마땅히 생길 것이 생기고, 마땅히 변화할 것이 변화하면 어찌 濕이 생기겠는가. 만약 氣虛로 능히 化할 수 없으면 그 陽을 補하여야 液이 저절로 변화하며, 氣實로 능히 化할 수 없으면 반드시 먼저 손상된 邪氣를 없애야 한다. 그러므로 陽을 억제하면 陰이 변화하고, 陰이 변화하면 液이 운행되며, 液이 운행되면 濕이 없어지고, 濕이 없어지면 氣가 이미 보람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氣는 濕과 더불어 서로 떨어질 수가 없고, 除

濕益氣도 또한 서로 떨어질 수가 없으니, 특히 益氣와 除邪는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은 『別錄』에서 益津液하고 暖胃하며 消穀嗜食한다고 한 뜻과 꼭 서로 합치한다.⁷³⁾⁷⁴⁾

鄒澍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朮(白朮)에 대해 살펴보니,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하였다.

白朮은 除濕益氣하는 효능이 있고, 濕을 寒濕과 熱濕으로 나누었을 때 虛證에 속하는 寒濕에 白朮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氣는 水穀에서 생기고 氣化 작용이 제대로 되어야 濕이 생기지 않고 液이 생기는데, 氣虛하면 氣化 작용이 제대로 안되어 濕이 생기므로 益氣하는 白朮을 써서 虛證에 속하는 濕病을 치료할 수 있다. 陰이 濕으로 변화되는 것은 모두 陽이 능히 化할 수 없는 데에 근본하는데, 白朮은 益氣함으로써 除濕하니, 陽氣의 작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陰濕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으로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28) 通草(=木通)

劉潛江이 이르기를, 木通의 쓰임을 세상 사람들은 水道를 통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本經』에 기재된 主治가 한결같이 모두 血을 주관하는 듯하며 水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決氣篇」에서 “中焦가 氣를 받으니, 이것이 血이 된다.”라고 한 것을 모르는 것이다. 곧 水는 血의 어미이고, 血은 水

73) 鄒澍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31-36. “劉潛江曰, 朮以除濕益氣爲功, 然則凡濕皆可用朮乎. 曰否. 夫濕當分寒熱, 屬於寒者, 是陽鬱陰中而不升, 屬於熱者, 是陰困陽中而不降. 陽鬱於陰, 是氣之虛, 陰困於陽, 是氣之實. 氣虛即陽虛, 氣實即陽盛. 是虛實皆屬氣而氣之虛實皆化濕也. 夫濕者, 地氣也, 陽鬱於陰, 是地氣因天氣之鬱而不化. 陰困於陽, 是地氣受天氣之并而不化, 皆能爲濕. 爲濕者皆陰, 陰所以化濕者, 皆本於陽不能化, 故一虛一實, 投治迥殊. 虛者補正以益氣, 白朮茯苓是也. 實者除邪以益氣, 連柏梔黃是也. 夫氣者水穀所生, 液者氣所化, 當生而生, 當化而化, 何濕之有. 如氣虛而不能化, 補其陽而液自化, 氣實而不能化, 必先除其所傷之邪, 故抑陽則陰化, 陰化則液行, 液行則濕除, 濕除則氣已受益矣. 是氣與濕不能相離, 而除濕益氣, 亦不能相離, 特益氣除邪, 貴於適事爲故耳. 是言也, 與別錄益津液暖胃消穀嗜食之旨, 適相脗合.”

74) 鄒澍 著.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pp.54-61

의 精으로 근원이 같으나 갈래가 나누어진 것이다. …… 『本經』에서 먼저 除脾胃寒熱을 말하였고, 다음으로 通利九竅血脈關節에까지 미쳤으니, 곧 木通이 肺와 胃사이의 흐름을 이어서 氣化를 통하게 하고 血化를 순조롭게 하는 것은 곧 그 줄기의 작은 구멍이 양쪽을 관통하고 있는 木通 줄기는 脈을 주관하고 있는 心과 血을 化生하는 包絡과 합하지 않는다. 또한 胃에서 小腸으로, 小腸에서 膀胱으로 절대 막힘이 없는 것과 합하지 않는다. 진실로 氣化가 통하고 血化가 순조로우면 맑은 것은 상승하고 탁한 것은 하강하여 상부에 있는 구멍으로 저절로 장애없이 神明이 잘 흐르고 하부에 있는 구멍으로 찌꺼기가 잘 배설된다. 이른바 通利九竅血脈關節은 通利水道와 더불어 또한 어찌 구별이 있겠는가. 75) 76)

鄒澍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通草(木通)에 대해 살펴보니,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하였다.

木通은 通水道的 효능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水와 血은 그 근원이 같고, 갈래가 나누어진 것이므로 通水道와 通利血脈은 같은 것이며, 氣化가 소통되어야 血化가 순조롭다고 한 것은 氣血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으로, 氣는 陽에 속하고, 血은 陰에 속하므로 크게 보면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29) 貝母

鄒潛江이 이르기를, 貝母는 8월에 채취하니, 金氣의 專一함을 받았다. 그 味는 쓴맛이 우세하고 매운맛은 미약한데, 매운맛은 쓴맛의 뒤에 나타난다. 쓴맛이 약간 찬 氣와 합쳐져 매운맛으로 돌아가니, 모

두 두 陰이 肺에 이르는 뜻이 있다. 하물며 그 색이 흰색으로 金을 상징함에 있어서라. 다만 쓴맛이 약간 찬 氣와 합쳐진 것은 땅에 있는 陰이니, 어찌 능히 갑자기 하늘에 있는 陽에 이르러 肺를 치료할 수 있겠는가? 곧 마땅히 그 잎이 싹을 따라 나오는 뜻을 참고하고, 그 다만 곧장 뚫고 나와 다시 머무름이 없는 것을 체감해야 한다. 다만 곧장 뚫고 나와서 능히 熱이 맺힌 것을 열 수가 있고, 다시 머무름이 없기에 능히 肺의 울체를 達하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은 詩人들이 “鬱結된 질환을 잘 치료한다.”라고 말한 뜻과 같다. 모든 氣가 가득 차고 울체된 것은 진실로 肺에 속하기 때문이다. 77) 78)

鄒澍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貝母에 대해 살펴보니, 氣의 通達을 중시하였다.

貝母는 흰색이고 8월에 채취하여 金氣를 지니고 있다. 苦味와 微寒한 성질은 陰에 속하지만 貝母가 肺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貝母가 곧장 뚫고 나와 머무름이 없기에 肺의 울체를 通達시킬 수가 있다. 이는 氣의 通達을 중시한 것이다.

30) 黃芩

鄒潛江이 이르기를, 黃芩은 諸熱黃疸과 腸澼洩痢를 주관하고 逐水한다. 이는 『本經』에서 본래 濕熱을 치료한다고 보았다. 미루어 생각해보건대 張潔古가 “肺火를 瀉하고 脾濕을 치료한다.”라고 한 것과 같다. 이에 羅天益은 “肺는 氣를 주관하고, 熱은 氣를 손상한다. 黃芩은 능히 瀉火하여 益氣하고 利肺한다.”라고 하였다. 그 說이 같지 않으니, 어찌서인가. 말하기를 黃芩은 오로지 上焦의 陽中의 陰을 주관한다. 대개 오직 下焦의 陰中에는 陽이 있어야 氣가 발생하

75) 鄒澍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159-160. “劉潛江云, 木通之用, 世類知其通水道. 本經所載主治, 一若悉主於血, 無與乎水者, 殊不知決氣篇曰, 中焦受氣是爲血, 則水乃血之母, 血乃水之精, 源同派別者也. …… 試取本經首言除脾胃寒熱, 次及通利九竅血脈關節, 則知木通於肺胃之交, 眞能爲之承接疏瀉, 使其氣化通血化利者, 卽其莖小孔中通兩頭貫徹, 不有合於主脈之心, 化血之包絡乎. 不又有合於自胃而小腸, 自小腸而膀胱, 絕無阻隔乎. 誠使氣化通 血化利, 清者升, 濁者降, 則在上之竅, 自無礙神明之游行, 在下之竅, 自能濟糟粕之輸瀉, 則所謂通利九竅血脈關節者, 與通利水道, 又豈有別耶.”

76) 鄒澍 著, 林鎭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pp.257-259.

77) 鄒澍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170-172. “劉潛江云, 貝母八月採取, 其受金氣之專, 其味苦勝辛微, 辛在苦後, 是苦合於氣之微寒, 以歸於辛, 皆二陰至肺之處也, 況其色白象金乎. 第苦合微寒, 是在地之陰也, 焉能遽至於在天之陽以治肺. 則當參其藥隨苗出之義, 而體其但有直透更無濡留矣. 但有直透, 能開熱之結, 更無濡留, 能達肺之鬱. 此言也, 與說詩者謂善療鬱結之疾合 以諸氣憤鬱, 固屬於肺也.”

78) 鄒澍 著, 林鎭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pp.273-275.

므로 陰은 항상 命門으로 말미암아서 상승하고, 上焦의 陽中에는 陰이 있어야 氣가 化하므로 陽은 항상 膈中으로 말미암아서 하강한다. 지금 上焦에 陽實하고 陰虛하면 氣가 말미암아 化할 수가 없고, 氣가 化하지 못하면 熱이 막혀서 濕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本經』에서 말한 것은 陽實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고, 張潔古가 말한 것은 陰虛하여 氣가 化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그 근본과 끝을 가지런히 하고, 그 처음과 끝을 요약해보니, 모두 熱이 氣에서 서로 부딪힌 것으로 羅天益이 말한 瀉火利肺와 어찌 다름이 있겠는가. 肺의 熱이 없어도 陰이 하강하여 心으로 들어가고 心氣가 이미 조화로우면 이에 惡瘡과 疽蝕과 火瘍이 모두 소멸된다. 이에 膈中の 陰이 저절로 和胃하여 脾를 적시고, 脾가 陰의 救濟를 얻으면 마침내 능히 그 운화 기능을 회복하여 黃疸과 泄利가 능히 멈출 수 있다. 胃가 陰을 얻어 조화로우면 마침내 그 소통하고 하강하는 기능을 회복하여 痰熱과 胃熱이 저절로 없어지고 또한 消穀한다. 大腸은 肺와 습하고, 小腸은 心과 합하여, 上竅가 막히면 下竅도 또한 막히고, 上竅가 통하면 下竅도 모두 通하니, 腸澀과 水氣가 능히 풀리지 않겠는가. 이와 같다면 黃芩은 능히 氣分の 熱을 식힐 뿐이니, 이에 또한 능히 血分病도 치료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개 黃芩이主治하는 제만 血分病은 본래 氣에서 말미암으니, 上焦의 陽中の 陰이 치료되면 肺가 陰을 心으로 내려보낼 수가 있어서 血分の 근원이 깊어진다. 근원이 이미 깊어지면 흐름도 저절로 맑아지니, 또한 어찌 血閉와 淋瀝下血을 걱정하겠는가. 무릇 陽中の 陰이 化하면 氣화가 이에 행해지고, 氣화가 행해지면 水道가 이에 원활해지므로 『本經』에서 逐水 아래에 下血閉를 붙였다. 血과 水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 79)80)

79) 鄒澍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172-176. “劉潛江云, 黃芩主諸熱黃疸腸澀洩痢逐水, 是本經固以治濕熱. 推之與張潔古所謂瀉肺火治脾濕者不殊矣. 乃羅天益謂肺主氣, 熱傷氣, 黃芩能瀉火益氣利肺, 則其說不同, 何歟. 曰黃芩專主上焦陽中之陰者也. 蓋惟下焦陰中有陽而氣生, 故陰恆由命門以升, 上焦陽中有陰而氣化, 故陽恆由膈中以降. 今者上焦陽實陰虛, 則氣無由化, 氣不化則熱阻生濕, 故本經所謂, 指陽實言也. 潔古所謂, 指陰虛氣不化言也. 齊其本末, 約其初終, 皆爲熱搏於氣, 與羅氏所謂瀉火利肺者,

鄒澍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黃芩에 대해 살펴보니,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하였다.

黃芩은 肺火를 瀉하고 氣分の 熱을 식히는데, 瀉肺는 上焦 陽中에 陰을 있게 하여 氣化하므로 下降할 수 있는 기를 마련하고, 瀉肺하여 肺熱이 없어지면 陰이 心으로 들어가 血分の 근원이 깊어져 흐름이 맑아짐으로써 血分病도 치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氣血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으로, 氣는 陽에 속하고, 血은 陰에 속하므로 크게 보면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31) 黃芪

劉潛江이 이르기를, 虛損을 치료한다. 膀胱에 熱이 있어서 尿血이 멈추지 않을 경우에는 蒲黃丸에 黃芪를 써서 下焦의 衛氣를 견고하게 한다. 그런 뒤에 地黃과 麥門冬을 비로소 합쳐야 清熱의 효력을 나타낸다. 또한 黃芪의 升陽하여서 達表하는 힘을 빌리고, 膀胱의 熱은 清寒한 약물을 투여하여 없애니, 이것은 陽氣가 下陷한 뜻을 밝힌 것이다. 대개 陽은 상부에서 바로 치료하면 안 된다. 이에 陰이 하부에서 그 化함을 순조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뜻이 있는 말이다. 81)82)

鄒澍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黃芪에 대해 살

豈有異耶. 肺之熱除, 則陰下降入心, 心氣既和, 斯惡瘡疽蝕火瘍悉消. 於是膈中之陰 自和胃以決於脾, 脾得陰濟, 遂能復其健運, 而黃疸泄利能已. 胃得陰和, 遂復其通降, 而痰熱胃熱自除, 且能消穀. 大腸者, 肺之合, 小腸者, 心之合, 上竅阻則下竅亦阻, 上竅通則下竅悉通, 腸澀水氣, 能不解耶. 如此則黃芩能清氣分之熱是已, 乃亦能治血分病, 何歟. 蓋黃芩所主血分諸病, 本由乎氣, 上焦陽中之陰治, 肺得降陰於心 血分之源潛矣. 源既潛則流自清, 又何患血閉及淋瀝下血耶. 夫陽中之陰化, 氣化乃行, 氣化行, 水道乃暢, 故本經逐水下, 卽繼之以下血閉, 血與水, 一而二, 二而一者也.”

80) 鄒澍 著,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pp.276-281.

81) 鄒澍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67-71. “劉潛江云, 治虛損, 膀胱有熱, 尿血不止者, 於蒲黃丸中, 用黃芪固下焦之衛, 然後地黃麥冬, 始得合而奏清熱之功, 亦藉其升陽以達表, 而水府之熱, 乃以投清寒而除, 是可明於陽氣下陷之意. 蓋陽不得正其治於上, 斯陰不能順其化於下, 旨哉言矣.”

82) 鄒澍 著,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pp.109-114.

펴보니, 氣의 通達을 증시하였다.

膀胱의 尿血이 虛에 기인한 경우 곧바로 淸熱藥을 써서 치료하기 보다는 下陷한 氣를 우선 북돋아 끌어올린 후에 淸熱藥을 써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黃芪로 升陽達表하여 表部 곳곳에 陽氣를 도달케 하여야 氣의 下陷으로 인한 下焦 膀胱의 尿血을 치료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한 것은 氣의 通達을 증시한 것이다.

32) 黃連

劉潛江이 이르기를, 黃連이 능히 濕熱을 없앨 수 있다고 한 것은 곧 腸胃를 두텁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黃芩도 또한 濕熱을 없애는데, 黃芩에는 왜 腸胃를 두텁게 한다는 말이 없는가. 대개 黃連의 성질은 건조하므로 心에 들어가서 건조시키는 작용은 곧 맛이 쓰고 氣가 차가운 데에 있다. 足陽明胃와 手陽明大腸은 모두 燥金에 속하여 같은 氣는 서로 求하니, 이것이 곧 두텁게 하는 뜻이다. 오직 黃連은 苦寒하면서 건조하지만, 黃芩은 비록 苦寒하더라도 건조하지 않다. 이로써 黃芩은 腸胃를 두텁게 하지 못한다.⁸³⁾⁸⁴⁾

鄒澍가 인용한 劉潛江의 논설 중 黃連에 대해 살펴보니, 除濕熱이 곧 腸胃를 두텁게 하는 것이고, 陽明에 속하는 胃와 大腸이 黃連이 지닌 건조한 성질의 燥金과 같은 氣로써 서로가 서로를 求하여 건조하지 않은 黃芩과 달리 厚腸胃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五行의 상호 작용을 증시한 것이다.

3. 『本草述』의 논술이 『本經疏證』 이후 후대에 미친 영향

『本草述』은 비록 문체가 蔓衍하다는 결점이 있기

는 하지만, 張琦의 『本草述錄』, 楊時泰의 『本草述鈎元』, 蔣溶의 『萃金裘本草述錄』, 陳其瑞의 『本草撮要』, 蘇廷琬의 『藥義明辨』, 鄒澍의 『本經疏證』, 『本經續疏』, 周巖의 『本草思辨錄』 등의 편찬에 영향을 미쳤다.

『本草述』의 영향을 받아 나온 책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책은 『本草述錄』으로 이 책은 『本草述』의 기초 위에서 1829년에 편찬된 책으로 張琦는 『本草述』 중에서 번다한 부분을 없애고 간략하게 했으며, 요점을 취하여 기록했는데, 기재된 약물은 500종이며, 총 6권이고, 내용은 性味, 歸經, 效能, 主治, 附方 등 임상실천과 관계가 큰 것만 택하여 劉潛江의 본旨와 떨어진 측면이 있다.⁸⁵⁾

그 후 楊時泰는 未訂本 『本草述』을 되풀이하여 열람하고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 마침내 寸寸 裝訂한 뒤 6년간에 시간을 들여 번다한 것을 삭제하고 이치를 밝혀 1832년에 『本草述鈎元』을 成書하였으나, 책이 출판되기 전에 죽었으며, 10년 동안 집에 보관해오던 것을 후에 門人 伍恂이 1842년에 편찬했다.

총 32권이며 編制 등은 『本草述』을 그대로 따르되, 『本草述』의 愚按을 論으로 고치고 劉潛江의 논술을 본旨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약하여 『本草述鈎元』이 간행된 이후로는 『本草述』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楊時泰는 鄒澍와 거의 동시대 동일 지역 사람이며, 『本草述鈎元』의 序文을 鄒澍가 써줄 정도로 두 사람은 학술적으로 많은 교류를 하였고, 약물 설명에 있어서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학문적 의견이 『本草述』의 인용을 공통점으로 삼아 거의 같았음을 알 수 있다.

楊時泰는 『本草述』이 너무 번다하여 藥理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고 『本草述』의 體例를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10분의 4정도는 번다한 부분을 삭제하고, 10분의 6정도는 그 藥理를 暢發하되, 劉潛江의 陰陽五行, 升降浮沈 등의 藥理說이 잘 드러나도

83) 鄒澍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62-67. “劉潛江云, 說者謂黃連能除濕熱, 卽是厚腸胃, 然黃芩亦除濕熱, 何以不然. 蓋黃連性燥, 故入心, 而燥卽寓味苦氣寒中. 足陽明胃, 手陽明大腸, 皆屬燥金, 同氣相求, 是卽厚之意也. 惟黃連苦寒而燥, 黃芩雖苦寒而不燥矣, 是以不得以厚腸胃屬之.”

84) 鄒澍 著,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pp.102-108.

85) 張瑞賢. 劉若金《本草述》初探. 中藥材. 1993. 6. pp.40-41.

焦振廉. 劉若金及《本草述》述略. 福建中醫藥. 2003. 3. pp.36-37.

록 요약정리하였다.⁸⁶⁾

또한 張琦와 同鄉 사람인 蔣溶은 『本草述錄』을 얻어 보고 완전하지 않다고 애석하게 여겨 1870년 『本草述錄』의 기초 위에서 補集 한 권을 增輯하고 野山參, 東洋參 등 53종의 약물을 보충하여 총 8권으로 된 『萃金裘本草述錄』을 저술하였다.⁸⁷⁾

鄒澍의 『本經疏證』 이후에 나온 책들 중에 陳其瑞의 『本草撮要』도 『本草述』의 영향을 받은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1886년에 成書되었고, 수록한 약재는 656종이며, 編制는 비교적 많이 쓰이는 草木類의 약물이 앞부분에 있고, 덜 쓰이는 水土部類의 약물이 맨 뒤에 있는 등 『本草述』과 차이가 있으며, 每 약물마다 性味, 歸經, 效能主治, 佐使反畏, 生用制用, 用藥禁忌 등의 내용을 기재했다.

예를 들어 黃芪를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黃耆〕 맛은 달고 약간 따뜻하며 手足太陰經에 들어가는데, 功은 오로지 益氣한다. 當歸를 얻으면 活血하고, 白朮을 얻으면 補氣하며, 防風을 얻으면 그 功이 더욱 커진다. 滑石과 白糖을 얻어 煎湯하여 복용하면 洞泄로 完穀이 소회되지 못한 것을 치료하는데 神效하다. 人參과 甘草와 生薑을 합치면 保元湯이 되어 痘瘡이 虛하여 不起하는 것을 치료하며, 혹 芎藭과 官桂와 糯米를 더하여 燉는다. 生用하면 차고, 炙用하면 따뜻하니, 生用하거나 酒炒하여 達表하고, 蜜炙하여 補中하며, 鹽水炒하여 補腎하고, 茯苓을 使로 삼으며, 鼈甲과 白鮮皮를 싫어하고, 防風을 두려워하며. 氣旺者는 少用을 금하고, 陰虛者는 마땅히 적게 사용해야 한다.”⁸⁸⁾

86) 楊時泰 輯. 本草述鉤元. 上海. 科技衛生出版社. 1957. pp.1-662.

林鎮錫. 鄒澍의 醫學思想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5. pp.1-74.

韓海偉, 柳成剛. 《本草述鉤元》學術特色探析.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20. 26(11). pp.1693-1695.

本草述鉤元. 百度百科. 2008. [cited on February 1, 2020] ; Available from: URL: <https://baike.baidu.com/item/%E6%9C%AC%E8%8D%89%E8%BF%B0%E9%92%A9%E5%85%83/8444498?fr=aladdin>

87) 張瑞賢. 劉若金《本草述》初探. 中藥材. 1993. 6. pp.40-41.

陳其瑞는 『本草撮要』를 편찬하기 전에 『本草述鉤元』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편찬이 완성되고 난 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本草述鉤元』의 번다한 부분마저도 깎아내어 藥을 經으로 삼고 方을 緯로 삼아 大要를 취하였으나, 劉潛江의 陰陽五行, 升降浮沈 등의 藥理說을 취하지 않았고, 相惡·相畏·相反 등의 七情과 藥對, 修治에 따른 效能, 禁忌 등 실용적인 부분만을 받아들여 기재하였다.⁸⁹⁾

蘇廷琬은 『本草述』을 보고서 “曲暢旁通, 義無不徹.”이라고 보고 마침내 요점을 간추려서 『藥義明辨』을 편찬했는데, 기재된 약물은 298종이며, 每 약물마다 性味, 歸經, 功用, 主治, 宜忌를 나열하고 名醫들의 논설을 인용하되 重點은 藥性和 藥理에 두었으며 修治 등은 기재하지 않아 『本草撮要』 등과 차이를 보였다.⁹⁰⁾

周巖의 『本草思辨錄』도 『本草述』의 영향을 받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04년에 간행되었으며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立方 원칙에 근거하여 128종의 약물의 藥性에 대해 토론하였는데, 李時珍, 劉潛江, 鄒澍, 徐大椿, 陳念祖 등의 醫家들이 서술한 藥性 이론들을 소개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變論하는 형식으로 기술하였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다.⁹¹⁾

88) 裘吉生 原編. 本草撮要(珍本醫書集成2 本草類). 서울. 醫聖堂. 1994. p.357. “味甘微溫, 入手足太陰經, 功專益氣. 得當歸活血, 得白朮補氣, 得防風其功益大. 得滑石白糖煎服, 治洞泄完穀不化神效. 合人參甘草生薑爲保元湯, 治痘虛不起. 或加芎藭官桂糯米助之. 生涼炙溫, 生用或酒炒達表, 蜜炙補中, 鹽水炒補腎. 茯苓爲使, 惡鼈甲白鮮皮, 畏防風. 氣旺者禁用, 陰虛者宜少用.”

89) 裘沛然 主編. 中國醫籍大辭典 上冊.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pp.250-381.

90) 張敏. 明清時期前楚中醫藥發展文獻研究. 湖北中醫藥大學碩士學位論文. 2016. pp.1-62.

裘沛然 主編. 中國醫籍大辭典 上冊.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pp.250-381.

91) 李哲, 徐明元, 呂金山. 清·周巖《本草思辨錄》學術思想探討. 中國實驗方劑學雜誌. 2010. 16(8). pp.231-233.

裘沛然 主編. 中國醫籍大辭典 上冊.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pp.250-381.

표 1. 『本經疏證』의 『本草述』 引用 약물의 특징

	陰陽의 상호 작용 중시	五行의 상호 작용 중시	氣의 升降 出入 중시	氣의 通達 중시
瓜蒂		○		○
款冬花	○			
芎藭	○			○
橘柚(橘皮)				
當歸	○	○		
獨活&防風			○	○
麥門冬	○			
麻子仁	○	○		
牡蠣	○			
礬石	○			
柏實	○	○	○	
白前				
茯苓	○	○	○	
商陸	○			
蘇	○	○		
消石	○			
柴胡	○		○	○
五味子		○		
薏苡仁		○		
紫菀		○		
鱧蟲				
赤白石脂	○			
皂莢		○		
知母		○		
地黃	○			
醋	○			
朮(白朮)	○			
通草(木通)	○			
貝母				○
黃芩	○			
黃芪				○
黃連		○		

III. 考察

1. 『本經疏證』의 『本草述』 인용 약물의 특징

지금까지 『本經疏證』 내에서 劉潛江의 『本草述』 내용을 인용한 32개의 약물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1) 陰陽의 상호 작용 중시

『本經疏證』에서 『本草述』을 인용한 32개의 약물 중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하면서 藥理를 설명한 것은 款冬花, 芎藭, 當歸, 麥門冬, 麻子仁, 牡蠣, 礬石, 柏實, 茯苓, 商陸, 蘇, 消石, 柴胡, 赤白石脂, 地黃, 醋, 朮, 通草(木通), 黃芩 등 총 19종류의 약물이 있다.

款冬花의 藥理 설명에서 至陽하여 견고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만드는 등 從陰生陽할 수 있다고 하거나 芎藭의 藥理 설명에서 陰中에서 達陽하고, 陽中에서 貫陰한다고 한 것 등은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當歸의 藥理 설명에서 血의 부족에 養血을, 血의 정체에 行血을 한다고 하면서 그 기전이 血에서 氣를 생성시킨다고 하거나 麻子仁의 藥理 설명에서 血이 氣를 운행하는 근원이고, 氣가 血을 조절하는 근원이라고 하는 것 등 氣血의 상호 작용을 중시하였다.

通草(木通)의 藥理 설명에서 氣化가 소통되어야 血化가 순조롭다고 하거나 黃芩의 藥理 설명에서 瀉肺는 上焦 陽中에 陰을 있게 하여 氣化하고, 瀉肺하여 肺熱이 없어져 血分의 근원이 깊어져 호흡이 맑아진다고 하는 것 등은 모두 氣血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氣는 陽에 속하고, 血은 陰에 속하므로 크게 보면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麥門冬의 藥理 설명에서 지극히 陰인 성질을 지니고 있지만 麥門冬이 작용하는 곳은 지극히 陽인 心肺이므로 夏至 이전에 채취한다거나 牡蠣의 藥理 설명에서 陽을 불러들여 陰으로 되돌린다고 하는 것 등은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礬石의 藥理 설명에서 寒水는 지극히 陰인 氣로 至陽이 나온다가거나 柏實의 藥理 설명에서 陰이 하강함에 陽이 따라오고, 陽이 상승함에 陰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 등은 陰陽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 것이다.

茯苓의 藥理 설명에서 陰中에서 陽을 흡수하여 陰으로 되돌린다거나 商陸의 藥理 설명에서 陰邪를 소통시켜 陽氣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 등은 陰陽의

상호 작용을 증시한 것이다.

蘇의 藥理 설명에서 陽이 陰을 얻지 못하면 氣가 변화하지 않는다거나 消石의 藥理 설명에서 陽이 상승하지 못하면 陰도 펼쳐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 등은 陰陽의 상호 작용을 증시한 것이다.

柴胡의 藥理 설명에서 울체된 陽을 퍼뜨려서 정체된 陰을 변화케 한다거나 赤白石脂의 藥理 설명에서 陰中에서 陽을 축적하고 변화하여 다시 응결한다고 하는 것 등은 陰陽의 상호 작용을 증시한 것이다.

地黃의 藥理 설명에서 血痺와 같은 질병에는 宣劑로, 胞漏와 같은 질병에는 攝劑로 쓴다고 하거나 醋의 藥理 설명에서 신맛이 木에 속하는데 木은 曲直이라고 하여 收斂도 하고 發散도 한다고 하는 것 등은 陰陽의 상호 작용을 증시한 것이다. 또한 朮의 藥理 설명에서 陽氣의 작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陰濕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등도 陰陽의 상호 작용을 증시한 것이다.

陰陽은 사물의 두 가지 속성으로, 상대적인 평형을 유지하고 있고, 상호 제약하며 상호 의존하고, 부단히 운동변화하며 일정 조건하에서 轉化하는 성질이 있는데⁹²⁾, 『本經疏證』의 『本草述』 인용 藥理說을 살펴보니, 이러한 陰陽의 상호 작용을 증시하였다.

2) 五行의 상호 작용 증시

『本經疏證』에서 『本草述』을 인용한 32개의 약물 중 五行의 상호 작용을 증시하면서 藥理를 설명한 것은 瓜蒂, 當歸, 麻子仁, 柏實, 茯苓, 蘇, 五味子, 薏苡仁, 紫菀, 皂莢, 知母, 黃連 등 총 12종류의 약물이 있다.

瓜蒂의 藥理 설명에서 여름에 火氣가 완전히 펼쳐지면 水氣도 완전히 펼쳐져 열매가 결실을 맺게 된다거나 當歸의 藥理 설명에서 火가 金으로 인하여 水에 화합하면 氣化하고, 金이 水를 잉태하여 火에 친하면 血이 생긴다고 한 것 등은 五行의 상호 작용을 증시한 것이다.

麻子仁의 藥理 설명에서 丁壬이 木을 化生해야 肝木이 윤택해져서 저장한 血이 저절로 운행하고, 辛丙이 水를 발생해야 腎水가 강화된다고 하는 것 등은 五行의 상호 작용을 증시한 것이고, 柏實의 藥理 설명에서 측백나무는 나무지만 서쪽을 향하므로 木氣와 金氣가 서로 얽힌다고 한 것 등은 五行의 상호 작용을 증시한 것이다.

茯苓의 藥理 설명에서 茯苓을 복용하면 心은 火를 주관하면서 아래로 水와, 腎은 水를 주관하면서 위로 火와 교합한다고 하거나 蘇의 藥理 설명에서 金이 火의 쓰임이 되면 氣化하고, 金火가 德을 합치면 그 氣가 온화해진다고 하는 것 등은 五行의 상호 작용을 증시한 것이다.

五味子の 藥理 설명에서 金의 속성을 지닌 열매가 木의 속성을 지닌 신맛이 가장 우세하므로 이를 肺와 肝이 교합하는 것으로 설명하거나 薏苡仁의 藥理 설명에서 薏苡仁이 평평한 연못에서 발생하고, 寒性은 水에 속하고 甘味는 土에 속하여 水土合德하다고 한 것 등은 五行의 상호 작용을 증시한 것이다.

紫菀의 藥理 설명에서 紫色과 재질의 부드러움을 水火合德이라 하거나 皂莢의 藥理 설명에서 木의 生化的 원천이 金에 있다고 한 것 등은 五行의 상호 작용을 증시한 것이다.

知母의 藥理 설명에서 土에 속하는 단맛과 胃를 연결하고, 金에 속하는 매운맛과 肺를 연결하여 肺胃의 氣分으로 들어간다고 하거나 黃連의 藥理 설명에서 陽明에 속하는 胃와 大腸이 건조한 성질의 燥金과 같은 氣로써 서로가 서로를 求하여 厚腸胃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등은 五行의 상호 작용을 증시한 것이다.

五行은 木火土金水의 五種 속성으로 木은 曲直, 伸張의 특성이, 火는 炎上, 溫熱의 특성이, 土는 載物, 生化的 특성이, 金은 肅殺의 특성이, 水는 寒冷, 滋潤, 閉藏 등의 특성이 있다. 또한 사계절에서는 生長收藏의 변화로 드러나며, 상호관계는 相生과 相克으로 나타난다.⁹³⁾ 相克은 한 사물이 다른 사물

92) 全國韓醫科大學生理學教授 編著. 東醫生理學. 坡州. 集文堂. 2008. pp.29-32.

93) 全國韓醫科大學生理學教授 編著. 東醫生理學. 坡州. 集文堂. 2008. pp.55-70.

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지만, 水土合德, 金火合德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물이 制約을 통해 완성으로 나아가는 측면이 있으며, 『本經疏證』의 『本草述』 인용 藥理說을 살펴보니, 이러한 五行의 상호 작용을 증시하였다.

3) 氣의 升降出入 증시

『本經疏證』에서 『本草述』을 인용한 32개의 약물 중 氣의 升降出入을 증시하면서 藥理를 설명한 것은 獨活과 防風, 柏實, 茯苓, 柴胡 등 총 5종류의 약물이 있다.

獨活과 防風의 藥理 설명에서 防風은 상승하는 본체를 갖추고 하강하며, 獨活은 하강하는 본체를 갖추고 상승한다거나 柏實의 藥理 설명에서 金의 하강이 끝나지 않으면 木의 상승도 끝나지 않고, 木의 상승이 끝나지 않으면 金의 하강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 등은 氣의 升降出入을 증시한 것이다.

茯苓의 藥理 설명에서 茯苓의 효능이 中土에 있고 淸陽을 올리면 濁을 배설하게 된다고 하거나 柴胡의 藥理 설명에서 下焦의 陰이 풍부해지면 陽이 선도하는 힘을 빌려 상행하여 교류하고, 上焦 陽이 풍부해지면 陰이 선도하는 힘을 빌려 내려가서 쌓인다고 하는 것 등은 氣의 升降出入을 증시한 것이다.

氣의 升降出入은 생명활동의 기초로 『素問·六微旨大論』에서 “升降은 상호 원인이 되어 변화가 일어난다.”⁹⁴⁾라고 하였고, 같은 篇에서 “出入이 아니면 나고 자라고 장성하고 늙고 죽을 수 없으며, 升降이 아니면 生長化收藏의 변화를 할 수가 없다.”⁹⁵⁾고 했는데, 『本經疏證』의 『本草述』 인용 藥理說을 살펴보니, 이러한 氣의 升降出入을 증시하였다.

4) 氣의 通達 증시

『本經疏證』에서 『本草述』을 인용한 32개의 약물 중 氣의 通達을 증시하면서 藥理를 설명한 것은 瓜蒂, 芎藭, 獨活과 防風, 柴胡, 貝母, 黃芪 등 총 7종

류의 약물이 있다.

瓜蒂의 藥理 설명에서 여름에 이르러 火氣가 완전히 펼쳐지면 水氣도 완전히 펼쳐져 열매가 결실을 맺게 되고, 水火의 펼쳐짐은 다시 土가 達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하거나 芎藭의 藥理 설명에서 芎藭은 陰氣의 소모를 바탕으로 升發 작용을 발휘하는데, 이를 陰中에서 達陽한다고 하는 것 등은 氣의 通達을 증시한 것이다.

獨活과 防風의 藥理 설명에서 防風은 매운맛에 근본하여 상승하고, 火中에 氣를 창달하여 陽結을 풀고, 獨活은 쓴맛에 근본하여 하강하고, 水中에 氣를 도달하게 하여 陰結을 풀는다고 하거나 柴胡의 藥理 설명에서 升降의 氣機가 막힌 경우 柴胡를 써서 그 樞를 회전시킨다는 것은 氣의 通達을 증시한 것이다.

貝母의 藥理 설명에서 貝母가 肺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貝母가 곧장 뚫고 나와 머무름이 없기에 肺의 울체를 通達시킬 수가 있다고 하거나 黃芪의 藥理 설명에서 膀胱의 尿血이 虛에 기인한 경우 黃芪로 升陽達表하여 表部 곳곳에 陽氣를 도달케 한 뒤에 淸熱藥을 써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 등은 氣의 通達을 증시한 것이다.

특히 達은 達字 이외에도 暢, 徹, 貫, 至 등의 비슷한 단어로 쓰여 설명되었다. 達字는 막힘없이 잘 통한다, 도달한다, 분명하게 이해한다, 꿰뚫다 등의 문자적인 의미가 있는데⁹⁶⁾, 達을 하게 되면 氣가 끝까지 펼쳐져 그 반작용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고(極則反), 無所不通하여 凝滯가 일어나지 않으며, 陰氣와 陽氣의 소통이 훨씬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場을 만든다.

氣의 通達은 앞에서 말한 陰陽과 五行의 상호 작용과 氣의 升降出入에 따라 일어나며 氣가 응체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교류되면서 通達되어 꾸준히 陰陽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94)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244.

95)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p.244.

96) 東洋學研究所 編纂. 漢韓大辭典 13. 서울. 東洋학연구소. 2008. pp.1034-1043.

2. 『本經疏證』의 『本草述』 인용 부분의 특징

鄒澍가 『本經疏證』을 저술하면서 『本草述』의 藥理說을 인용한 부분을 살펴본 결과 陰陽과 五行의 상호 작용 중시 및 氣의 升降出入, 氣의 通達을 중시한 측면이 있었다.

鄒澍는 약물을 처방과 함께 연관지어 설명할 때 주로 『傷寒論』과 『金匱要略』 등 張仲景의 책을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劉潛江은 丹溪方 등 출처가 분명한 책도 있었으나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附方의 형태로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

『本經疏證』에서 鄒澍가 劉潛江의 『本草述』 약리설을 인용한 것은 鄒澍도 藥理를 설명함에 있어서 劉潛江의 방식처럼 陰陽과 五行의 상호 작용 중시 및 氣의 升降出入의 중시와 氣의 通達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그 약물의 작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陰陽과 五行의 상호 관계로 藥理를 설명한 本草書는 상당히 많고, 氣의 升降出入 및 升降浮沈으로 藥理를 설명한 것은 張潔古-李東垣-王好古-羅天益으로 이어지는 易水學派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⁹⁷⁾ 또한 升降의 이치는 약물에 있지만 사람이 炮製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을 설명한 李時珍 등이 있지만¹⁰⁰⁾, 氣의 通達을 중심으로 藥理를 설명한 것은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劉潛江은 『本草述』에서 性味나 主治를 기술할 때 鄒澍처럼 『神農本草經』과 『名醫別錄』을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니고, 『神農本草經』과 『名醫別錄』을 비롯하여 『日華子本草』, 『本草綱目』 등의 내용도 함께 참조하여 기재하였다.

『本草述』의 논술이 후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本草述錄』과 『本草撮要』는 『本草述』의 기초 위에서

지어졌으나, 藥理說을 도외시키고 실용적인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취하여 『本草述』의 본旨와 멀어진 측면이 있고, 『本草述鈎元』은 번다한 『本草述』을 본旨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리하여 『本草述』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으며, 『本經疏證』과 『本草思辨錄』 등은 『傷寒論』과 『金匱要略』을 중심으로 藥物의 쓰임이 方劑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組方에 도움이 되게 하였고, 『本草述』의 藥理說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IV. 結論

이상에서 『本經疏證』의 『本草述』 인용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陰陽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藥理를 설명한 약물은 款冬花를 포함하여 총 19종류의 약물이 있었는데, 陰陽의 상호 소통과 상호 작용을 중시하였다.
2. 五行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藥理를 설명한 약물은 瓜蒂를 포함하여 총 12종류의 약물이 있었는데, 金火合德, 水土合德 등의 이치를 설명하였고, 五行 상호간의 관계성을 중시하였다.
3. 氣의 升降出入을 중심으로 藥理를 설명한 약물은 獨活과 防風 등을 포함하여 총 5종류의 약물이 있었는데, 升과 降은 서로가 원인이 된다고 하는 등 氣의 升降出入을 통한 상호 소통을 중시하였다.
4. 氣의 通達을 중심으로 藥理를 설명한 약물은 柴胡를 포함하여 총 7종류의 약물이 있었는데, 陰陽五行과 升降出入을 통한 氣의 通達을 중시했으며, 이를 통해 氣가 응체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꾸준히 陰陽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중시하였다.
5. 『本經疏證』에서 鄒澍가 劉潛江의 『本草述』 藥理說을 인용한 것은 鄒澍도 陰陽과 五行의 상호 작용 중시, 氣의 升降出入 중시, 氣의 通達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이며, 한 단계 더 나아가 『傷寒論』과 『金匱要略』을 중심으로 組方에 도움이 되게 하는 등 『本草述』의 藥理說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승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97) 趙學俊, 金容辰, 藥物의 '升降浮沈' 이론과 方劑上의 運用例에 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3). pp.33-46.

98) 杜鵬, 金元醫家藥性理論文獻研究. 山東中醫藥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pp.1-99.

99) 閻福平, 張元素升降浮沉理論在中藥組方配伍中應用的研究. 黑龍江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20. pp.1-51.

100) 金南一, 歷代 傳統藥理學說의 變遷. 韓國醫史學會誌. 2005. 18(2). pp.3-14.

References

1. 柯新橋. 潛江劉若金軼事. 湖北中醫雜誌. 1983. 3.
2. 裘吉生 原編. 本草撮要(珍本醫書集成2 本草類). 서울. 醫聖堂. 1994.
3. 裘吉生 原編. 本草思辨錄(珍本醫書集成2 本草類). 서울. 醫聖堂. 1994.
4. 裘沛然 主編. 中國醫籍大辭典 上冊.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5. 金南一. 歷代 傳統藥理學說의 變遷. 韓國醫史學會誌. 2005. 18(2).
6. 杜鵬. 金元醫家藥性理論文獻研究. 山東中醫藥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7. 李鐵君. 鄒澍和他的《本經疏證》. 南京中醫學院學報. 1983. 3.
<https://doi.org/10.14148/j.issn.1672-0482.1983.03.022>
8. 李哲, 徐明元, 呂金山, 清·周巖《本草思辨錄》學術思想探討. 中國實驗方劑學雜誌. 2010. 16(8).
<https://doi.org/10.13422/j.cnki.syfjx.2010.08.069>
9. 林鎮錫. 鄒澍의 醫學思想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大醫院 博士學位論文. 1995.
10. 林鎮錫, 朴贊國. 鄒澍의 醫學思想에 대한 研究 -藥理說을 中心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995. 9.
11. 萬德華. 本草學家劉若金傳略. 中國民族民間醫藥. 2012. 21(9).
12. 楊時泰 輯. 本草述鉤元. 上海. 科技衛生出版社. 1957.
13. 楊玉荷. 《本草述》說略. 湖北中醫雜誌. 1992. 5.
14. 閔福平. 張元素升降浮沉理論在中藥組方配伍中應用的研究. 黑龍江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20.
<https://doi.org/10.27127/d.cnki.ghlzu.2020.000443>
15. 王昆文. 鄒澍安與《本經疏證》. 四川中醫. 1990. 1.
16. 王全利. 鄒澍本草著作研究. 山東中醫藥大學 博士學位論文. 2014.
17. 殷中來, 陳冰. 讀《本草述校注》淺析劉若金學術思想. 中醫文獻雜誌. 2016. 34(2).
18. 張敏. 明清時期荆楚中醫藥發展文獻研究. 湖北中醫藥大學. 2016.
19. 張瑞賢, 劉若金《本草述》初探. 中藥材. 1993. 6.
<https://doi.org/10.13863/j.issn1001-4454.1993.06.022>
20. 全國韓醫科大學生理學教授 編著. 東醫生理學. 坡州. 集文堂. 2008.
21. 趙學俊, 金容辰. 藥物의 ‘升降浮沈’ 이론과 方劑上의 運用例에 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3).
22. 焦振廉, 劉若金及《本草述》述略. 福建中醫藥. 2003. 3.
<https://doi.org/10.3969/j.issn.1000-338X.2003.03.029>
23. 焦振廉. 談《本草述》的本草學史地位及其得失. 福建中醫藥. 2006. 6.
<https://doi.org/10.3969/j.issn.1000-338X.2006.06.043>
24. 鄒澍 撰.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25. 鄒澍 著,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 上. 서울. 아티전. 1999.
26. 鄒澍 著, 林鎮錫 옮김. 本經疏證 下. 서울. 아티전. 1999.
27. 韓海偉, 柳成剛. 《本草述鉤元》學術特色探析.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20. 26(11).
28.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85.
29. 本經疏證. 百度百科. 2008. [cited on February 1, 2020]; Available from: URL: <https://baike.baidu.com/item/%E6%9C%A C%E7%BB%8F%E7%96%8F%E8%AF%81/10181438?fr=aladdin>
30. 本草述鉤元. 百度百科. 2008. [cited on February 1, 2020]; Available from: URL: <https://baike.baidu.com/item/%E6%9C%A C%E8%8D%89%E8%BF%B0%E9%92%A9%E5%85%83/8444498?fr=aladdin>